백두-한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鲜人总联合会

주체112(2023) 8
http://www.paekdu-hanna.com

백두 - 한나
주체112(2023) NO.342









금산포젓갈가공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젓갈품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 맛좋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젓갈가공품들이 생산되고있다.

서해수산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여러가지 어종들로 젓갈품들을 특색있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판매되고있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geminghuodongxiaoxi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조국소식
CHAOXIANXIAOXI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iiating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중국소식
zhongguoxiaoxi

국제소식
guojixiaoxi

상식
changshi

백두 - 한나
PAEKDU-HANNA

앞표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정은동지께서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 시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김명식 해군대장과 해군 동해함대와 수상함전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군사적이 깃든 이 부대가 걸어온 력사의 전투적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령군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이 부대가 싸움준비에서 항상 모범을 창조하며 언제나 해군무력강화의 맨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나갈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수상함전대 함선들의 전투동원준비실태와 전쟁준비실태,군인들의 군무생활,군항개건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상경계근무에 진입하게 되는 경비함 661호에 오르시여 함의 무장상태와 전투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불의의 정황에 대처할수 있게 높은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유지하며 상시적인 전투동원태세를 철저히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싸일발사훈련을 참관하시였다.

함의 전투적기능과 미싸일무기체계의 특성을 재확증하며 해병들을 실전환경에서의 공격임무수행동작에 숙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발사훈련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타격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태세와 공격

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유사시 적들의 전쟁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전술적기도를 관철하며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사수함에 있어서 조선인민군 해군이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우리 해군을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현대적인 수상 및 수중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만단으로 갖춘 만능의 강력한 주체적군종집단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적인 해군강화발전방침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해군무력발전로선을 억세게 틀어쥐고 위력한 함건조와 함상 및 수중무기체계개발을 비롯한 해군무장장비현대화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해군의 현대성과 전투능력을 빠른 기간에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올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군의 모든 수상 및 수중함선부대들이 상시적인 동원성을 철저히 유지하는것과 함께 훈련이자 전쟁준비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투훈련강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실전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싸움의 승패여부는 군인들의 정치사상적,정신도덕적우월성에 기인된다고 하시면서 전투마당에서 실지 필요한것은 무장장비의 수적,기술적우세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군인들의 압도적인 사상정신적위력이라고,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한 군인에게는 이기지 못할 적과 실패할 싸움이란 있을수 없으며 바로 우리 군대의 고유한 그 전통과 정신을 오늘의 세대가 한치의 탈선도 없이 꿋꿋이 이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해군의 빛나는 전투행로에 불사신의 영웅정신을 길이 기록한 김군옥,채정보영웅을 비롯한 전세대 해군용사들의 불굴의 전투정신이 새세대 해병들을 승리에로 고무하고 위대한 주체사상이 승리의 항로를 밝혀주고있기에 우리 해군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확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해병들이 조국결사수호정신을 만장약하고 국가방위의 전초병, 바다의 결사대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함으로써 세계해전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던 전세대 영웅해병들의 위대한 명성과 영예를 수호하고 믿음직하게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부대의 전체 장병들은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조국사수,조국수호의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의 막강한 힘을 다지고다져 우리의 주권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철벽으로 보위하며 조국의 바다에 충성의 항로만을 새겨가는 용감한 맹장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억척의 결의를 다짐하였다.(끝)



김정은동지께서 안석간석지 피해복구현장 현지지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21일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지에 도착하시여 조용원동지, 김재룡동지, 강순남동지, 정경택동지, 김정관동지, 박정천동지로부터 피해정형과 복구실태를 상세히 보고받으시였다.

최근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남포시 온천군 석치리지역에 위치한 안석간석지 제방에 배수구

조물설치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데로부터 바다물의 영향으로 제방이 파괴되면서 논벼를 심은 270 여정보를 포함하여 총 560여정보의 간석지구역이 침수되는 엄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 동기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하시고 일군들의 매우 무책임한 직무태만행위를 심각히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며칠전 안석간석지논이 침수되였다는 보고를 받고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직접 복구사업을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군대까지 동원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어떻게 되여 내각과 성,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은 현장에 얼굴도 내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내각총리는 관조적인 태도로 현장을 한두번 돌아보고 가서는 부총리를 내보내는것으로 그치고 현장에 나온 부총리라는 사람은 연유공급원노릇이나 하였으며 주인으로서 공사를 직접 지휘해야 할 간석지건설국장은 자기는 크게 할 일이 없기때문에 돌아가겠다고 당위원회에 제기하다가 비판을 받고도 거의나 기업소사무실에서 맴돌며 허송세월한것마저 배수문공사용으로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많은 연유를 떼내여 몰래 은닉해놓는 행위까지 하였다는데 정말 틀려먹은것들이라고,엄중한 피해를 발생시킨 당사자들로서 자그마한 가책이나 책무수행에 대한 사소한 의지조차 결여된 의식적인 태공행위라고 엄하게 비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바로 얼마전 안변군 농경지침수피해가 발생한것을 계기로 전국가적으로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할데 대하여 경종도 울리였고 피해복구전투에 동원된 군인들의 투쟁기풍을 통하여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지방의 행정경제일군들의 무책임한 일본새에 강한 타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둔감해있다고, 이번에도 군대가 전적으로 달라붙어 해달라는 자세이며 또 응당 그래야 한다는 식의 뻔뻔스럽고 불손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올해 6월부터 농경지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배수구조물설치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국가건설허가도 받지 않고 건설감독기관의 감독통제도 없이 날림식으로 거칠게 진행한것마저 수문제방으로 물이 새는것을 사전에 발견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래단위들의 그릇된 일본새도 문제이지만 간석지건설국이 이러한 건설을 자의대로 승인하고 망탕 할 때까지 내각이 전혀 모르고있었다는것은 행정경제규률이 얼마나 문란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고,이것만 보아도 내각의 모든 행정경제사업들이 제가다리로 움직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내각에 사업체계가 옳바로 세워져있지 않으며 실속없는 일군들이 등용되여 유명무실하게 틀고앉아 산하단위들에 대한 지도도 제바로 하지 못하고있다고,최근 몇년어간에 김덕훈내각의 행정경제규률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새로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있다고 하시면서 내각이 내리지령밖에 할줄 모르는 지령부서,통보부서처럼 되게 된데는 국가경제사업과 경제기관들에 대한 당정책적 및 당적지도를 맡은 당중앙위원회의 책임도 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피해는 결코 자연재해현상으로 인한 악재가 아니라 철두철미 건달군들의 무책임성과 무규률에 의한 인재라고 명백히 규제하시면서 당중앙의 호소에 호흡을 맞출줄 모르는 정치적미숙아들,경종을 경종으로 받아들일줄 모르는 지적저능아들,인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외면하는 관료배들,당과 혁명앞에 지닌 책무에 불성실한자들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규률조사부,국가검열위원회와 중앙검찰소가 책임있는 기관과 당사자들을 색출하여 당적,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할데 대하여 명령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가적으로 농작물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는 시점에조차 일군들의 무책임성과 무규률성이 란무하게 된데는 내각총리의 무맥한 사업태도와 비뚤어진 관점에도 단단히 문제가 있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내각총리가 관련보고서에서 안석간석지의 논면적이 올해 국가알곡생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해당 지역 군부대의 토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책답지 못한 대책을 보고해놓고는 복구사업을 군대에 거의 맡겨놓다싶이 하고 그나마 너절하게 조직한 사업마저도 료해해보면 피해상황을 대하는 그의 해이성과 비적극성을 잘 알수가 있는데 나라의 경제사령부를 이끄는 총리답지 않고 인민생활을 책임진 안주인답지 못한 사고와 행동에 유감을 금할수 없다고,내각총리의 무책임한 사업태도와 사상관점을 당적으로 똑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였으며 직무태만행위를 한 간석지건설국장은 당규률심의위원회에서 출당문제를 심의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의 지휘와 지시에 불복하거나 무관심한 현상,나라에 재난이 닥치든말든 자기 소관이 아니면 외면해버리는 준비되지 못한 일부 일군들의 안온하고 게으른 일본새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다고 하시면서 패배주의,보신주의에 물젖은 일군들의 사상정신상태부터 개변하고 모두가 하나의 규률에 복종하고 국가사업에 주인답게 떨쳐나서는 기풍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간석지피해복구사업을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파괴된 제방복구를 빨리 결속하는것과 함께 환원복구가 가능한 논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염기피해방지와 영양관리대책을 비롯하여 논벼생육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들을 강구함으로써 논벼수확고감소를 최소화하고 초기예상수준의 알곡소출을 거둘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농업부문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조치들을 각방으로 실시함으로써 피해를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모든 부문,모든 단위들이 절대적으로 긴장각성하지 못하고 매번 국가적손실을 입은 뒤끝에야 따라다니며 필요

한 대책을 취한다,교훈을 찾는다고 하면서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으로 일하고있는데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더이상 무방비,무능력으로 인한 무모한 피해,특히 무책임성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실속있는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각급 단위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자각하고 자기 맡은 책무를 엄격히 수행하며 나라일에 언제나 발벗고나설줄 아는 높은 애국심과 헌신성을 발휘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에 따라 간석지건설국, 가건설감독성,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남포시국토환경보호관리국, 남포시건설감독국에 대한 집중검열사업이 시작된다.(끝)

김정은동지께서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을 돌아보시며 태풍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재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주철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동지, 공군사령관 김광혁공군대장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 논들을 돌아보시면서 피해복구실태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으시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한 농업기술적대책들을 세운 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흔적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풍요한 가을을 기약하며 황금빛을 기다리고있는 농장벌을 바라보시며 이 농장벌에도 우리 군인들의 충성의 구슬땀이 뿌려져있다고, 우리 군인들의 애국충심에 의해 자연재해를 입었던 이곳에도 황금이삭이 설레이는 바다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수포전들의 농작물생육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선인민군 공군부대의 직승기와 경수송기들을 동원하도록 조치하시고 농약살포사업을 몸소 조직지휘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군 제2623군부대 비행사들은 인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그 어떤 임무에도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되여있는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과 절대사명에 충실할 일념을 안고 즉시 비행임무에 진입하여 해당 침수면적에 대한 농약살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명령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받아안고 떨쳐나 무한한 헌신성과 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태풍에 의한 피해흔적을 말끔히 가셔내고 논벼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민군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태풍피해가 발생한 즉시 인민군군인들이 침수피해를 입은 농경지복구에 진입하여 짧은 기간내에 원상복구하는 기적을 창조한데 이어 오늘 또다시 농작물생육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싸움마당에서 용감할뿐만 아니라 당정책관철에도 늘 앞장에 서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나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알곡생산에도 이바지하려는 우리 군인들의 강렬한 정신세계, 이것이 바로 조선인민군이 지니고있는 고유한 체질이며 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고 본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우리 군인들을 태풍피해복구사업에로 조직동원시킨것은 결코 200정보의 피해면적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싸우는 전선에서 한치의 땅도 적들에게 내여줄수 없듯이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업전선에서 단 한평의 땅도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빼앗길수 없기에 그 영예로운 임무를 응당 우리 군대에게 맡길것을 결심하였다고, 우리 군대는 인민의 복리를 지키는데서 한치의 양보도 모르는 진정한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로 피해복구전투를 조직한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전선에 또한번 우리 군인들을 내세움으로써 인민군대특유의 정신력과 전투력을 더욱 발화시키고 자기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자각하도록 고무추동하기 위한데 있으며 또한 해당지역 인민들과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이 군인들의 투쟁본때를 본받아 자기 사는 지역의 소중한 땅을 뼈심들여 관리하고 잘 가꾸어나가도록 교양각성시키자는데도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역시 우리 군대가 당중앙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사관철해온 자랑찬 전통대로 자연재해복구사업에서도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를 지켜 혁명군대의 무한한 충실성과 투쟁기질을 다시한번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특히 이번에 조선인민군 제2623군부대와 조선인민군 제863군부대, 조선인민군 제974군부대의 해당 전투구분대들이 막강한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보여주었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수피해를 받은 해당 농장들에서 신심을 가지고 농업생산에 적극 떨쳐일어나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농작물생육후반기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며 올해 농사를 안전하게 결속하기 위한데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뿐만아니라 농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다시한번 총궐기하여 재해성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알심있게 진행함으로써 전국의 그 어느 농장에서나 다수확의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가적으로 피해방지대책과 위기대응능력을 더욱 철저히 갖출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특히 농경지와 농작물들이 자연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설물정비보강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연재해방지능력을 후열조사하고 취약한 고리들을 찾아 신속하고 적시적인 대책을 따라세움으로써 그 어떤 재해성기후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있게 확고히 준비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의 애국적인 헌신으로 자기의 새 모습을 드러낸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전경을 둘러보시며 자연의 피해를 가셔낸 이 지대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과 행복이 깃들기바란다고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11일과 12일 전술미싸일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수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춘룡동지,김정식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술미싸일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미싸일생산실태와 생산능력보강 및 공장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이 최근년간 전술미싸일생산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포치를 받들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완비하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자립화를 실현하였으며 생산능력을 부단히 확장하면서 설비현대화도 힘있게 내밀어 현행군수생산목표를 계획대로 어김없이 집행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이미 계렬생산되고있는 전술미싸일들을 기동성있게 생산보장하는것과 함께 새로 개발되는 전술미싸일들의 생산공정을 신속히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우고있으며 공장개건현대화를 부단히 실현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서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이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현존미싸일생산능력을 보다 비약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확대강화된 전선부대들과 미싸일부대들의 편제수요와 작전계획수요에 맞게 대대적으로 생산장비시킬데 대한 중대한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준비의 질적수준은 군수산업발전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를 다그치는데서 맡고있는 책임이 대단히 막중하다고, 공장에서는 로동계급의 애국적열의를 폭발시켜 전쟁준비를 위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술미싸일발사대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각이한 발사대차개발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군사전략적기도에 따라 전투마당에서 유력하게 사용되게 될 주요화력무기대차들의 신속한 개발생산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시면서 부대장비수요와 리용방안이 확정된데 맞게 질적수준이 우세한 우리식 발사대차생산전투에 총돌입함으로써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계획된 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차생산에서 다용도화를 실현하는것이 국방과학의 발전추이로 보나 작전환경에서의 효률적측면에서 보나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대차설계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생산공정현대화에 힘을 집중하여 군대의 전쟁준비완성에 실지 기여할수 있는 현대적이며 성능높은 발사대차들을 더 많이 생산장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장갑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다용도전투장갑차개발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제2차 장갑무력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과 전략적기도에 맞게 장갑차생산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다용도전투장갑차를 직접 몰아보시면서 전투적성능과 기동성을 료해해보시고 우리식 다용도전투장갑차개발에서 도달하여야 할 전술기술적제원들과 공장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구경조종방사포탄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중요목표수행정형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및 방사포탄의 생산정상화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 방사포탄의 탄도정밀조종화실현을 가장 중차대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한 결과 대성공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122㎜와 240㎜방사포탄의 조종화를 실현한것은 현대전준비에서 중대한 변화로 되며 최대의 격파효률을 담보할수 있게 되는것으로 하여 방사포리용분야에서의 일대 혁명이라고,새로운 기술이 우리 군대에 도입된 시점에서 이제는 포탄생산에 총궐기하여 우리 포병무력의 전투성을 한계단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이 우리 군대의 포병무력강화에서 노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자,기술자,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고 기술혁명,증산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생산공정현대화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 생산정상화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는데 대하여서도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선부대들의 포병무력강화에서 조종방사포탄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는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증가된 군의 작전수요에 맞게 포탄생산에서 장성을 이룩하여 더 많은 포탄들을 전선부대들에 종장배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는 임의의 시각에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춤으로써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만약 접어든다면 반드시 피멸시켜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를 보다 철저히 갖출데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사상을 관철하는데서 군수공장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강령적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중요군수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기술자들은 조국통일,조국사수를 위한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완성을 무장장비생산으로 억척같이 담보해야 할 무거운 사명감을 다시한번 깊이 자각하며 강력한 전쟁억제력수단들의 무수한 증산성과로 당의 위업에 절대충성할 불타는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된 엄중한 정치군사정세에 대처하여 군대의 전쟁준비를 보다 철저히 갖추기 위한 중대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가 8월 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과 전선군단 및 중요임무담당부대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에서는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정세악화의 주범들의 군사적준동을 분석하고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하였으며 유사시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인 군사적공세를 취하기 위한 확고한 전쟁준비태세를 갖출데 대한 문제들이 중요의제로 토의되였다.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군사적대결행



위가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현정세는 우리 군대의 보다 주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압도적인 전쟁대응의지와 철저하고 완전한 군사적준비태세를 필요로 제기하고있다.

회의에서는 유사시 군사전략전술적 및 군사력의 확고한 우세로써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 소멸하기 위한 강화된 전선작전집단편성안과 작전임무들을 심의하였으며 전선부대들의 작전수행능력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보다 구체화된 작전계획을 수립함에 관한 군사적대책들이 진지하게 연구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결과에 기초하여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확대변화된 작전령역과 작전계획에 따르는 중요군사행동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새로운 전략적임무에 따르는 실전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상시적인 작전준비태세를 만단으로 갖추는데서 나서는 군사실무적문제들과 관련결정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중대한 군사적대책에 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현 조선반도지역정세를 심도있게 개괄분석하시고 군대의 전쟁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칠데 대한 강령적결론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의 군사력사용을 사전에 제압하며 전쟁발생시 적의 각이한 형태의 공격행동을 일제히 소멸하기 위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기도실현에서 기본은 강한 군대가 준비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쟁억제력사명수행의 위력한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보유하는것과 함께 부대들에 기동적으로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배비된 신형무장장비들을 최대의 전투적효과를 발휘할수 있게 효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전훈련들을 적극 벌리며 항상 동원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데서 군수공장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대화되여가는 군의 작전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장비들의 대량생산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무장장비생산능력조성과 생산계획목표를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박수일대장을 총참모장직에서 해임하고 리영길차수를 새로 임명하였으며 주요직제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

또한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간무력열병식준비를 잘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화국무력앞에 나서는 일련의 중요과업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는 현대전에서 조선인민군이 확고한 전략전술적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을 압승할수 있는 실천적인 강령들을 제시함으로써 전쟁승리의 군사적담보를 튼튼히 마련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조국해방 78돐 단동시 조선공민들 행사진행

력사적인 조국해방 78돐을 맞으며 리순남부의장을 비롯하여 경제인련합회 회원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주계숙지부장을 비롯한 단동시공민들은 단동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증정하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민족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르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행사에 참가한 단동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 부총령사동지는 해외동포들은 비록 해외에서 살고 있어도 언제나 어머니조국의 품이 있다는 크나큰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는 한없이 소중한 우리 조국을 돕는 일들을 찾아서하는것이 해외공민들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단동대표부에서는 단동에 있는 총련합회 산하 여러 조직들과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조국의 귀중함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전체 참가자들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 막아도 누가 보건 말건 조선해외공민 답게 애국의 한길을 변심없이 걸어나갈 결의들을 다지였다.



연변지구협회에서 소왕청유격구에 대한 답사 진행



조국해방 78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에서 15일 소왕청유격구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다.

답사에는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겸 연변지구협회 회장, 최명진, 김권 부회장들과 심홍광사무장, 산하지부 남송숙, 김순자, 김영식, 리희웅 지부장들과 부지부장들, 지순복 장춘시 지부장, 김승걸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과 회원들, 왕청에서 살고있는 재중조선공민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답사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무장투쟁사의 거룩한 발자취가 찍혀져있는 소왕청 마촌반일인민유격대사령부 사적비에 꽃다발과 꽃송이를 진정하고 《밀림속의 병기창》, 《마촌아동단학교》, 《우물》, 《뾰족산》 등 전적지의 여러곳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하여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최악의 조건속에서 전민항전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일제의 대병력과 피어린 결사전을 벌린 소왕청방위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주석님의 탁월한 령도와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항일유격대원들과 유격구인민들이 지닌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의 빛나는 승리였다고 격찬하면서 주석님께서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한결같이 칭





송하였다.

이어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인민들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의 혁명전통을 꿋꿋이 이어가며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라고 확언하면서 항일혁명의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백두산의 하늘아래에서 사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승절에 즈음하여 목단강지구협회에서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목단강지구협회 남초월회장을 비롯한 지구협회 일군들과 목단강시 공민들과 가족들은 지원군전사 안창명로병과 지원군렬사자녀들과 함께 목단강시 강빈공원에서 전승절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서 안창명(91살) 지원군로병은 모임 참가자들에게 가렬처절했던 조선전쟁을 감회깊이 회고하며 자기가 직접 겪었던 참혹한 조선전쟁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중국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위대한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전선에 나가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한 전호속에서 어깨겯고 반침략전쟁에서 무비의 희생정신과 국제주의 정신을 발휘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였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그는 렬세한 무장과 후근보장이 잘 되지 않아서 희생도 많았다고 목메여 흐느끼면서 자기의 전우들을 포함하여 10여만의 지원군렬사들이 조선땅에 잠들고 있다고, 지원군렬사들의 영웅주의 정신을 선전하는것은 살아있는 자기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전장에서 희생된 전우들을 그리며 눈굽을 적시였다.

지원군렬사자녀들도 조선전쟁에서 희생된 아버지, 어머니들의 영웅사적을 추억하면서 지원군전사들의 영웅주의정신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 있다고, 오늘의 이 귀중한 평화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며 날로 발전하는 조중친선에 자신들도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피력하였다.

모임에 참가한 공민들과 가족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담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준비하여 로병과 렬사자녀들에게 안겨주고 조국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각자가 마련해온 정심을 펼쳐놓고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영광넘쳐라 우리 공화국이여!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자주, 자립, 자위의 기치높이 영웅조선의 위대한 계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질풍노도쳐가는 영광넘친 행로에서 온 나라가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을 우리 국가와 인민의 경사로운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였습니다.

재중조선인 전체 청년들은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일체로 굳게 뭉친 무궁무진한 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신생공화국을 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 인류평화를 수호한 불멸의 전승사를 백년, 천년으로 굳건히 이어갈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장장 70 성상의 년륜을 아로새긴 승리의 날을 맞이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습니다.

70 여년전 미제와 추종국가세력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보위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환희가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올랐던 광장에서 전승절경축 열병식을 진행하게 되는것은 우리 공화국무력 장병들의 크나큰 영예이며 전체 조선인민 모두의 대경사입니다.

열병식장에 억만금으로도 살수 없는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시기 지휘관상징종대의 입장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의무이기전에 량심과 영예, 도덕과 의리로 간직하고 위대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위훈의 자욱을 아로새긴 수많은 항일의 용장, 맹장들이 있어 오늘의 경축행사장은 그 무엇보다 더 자랑스럽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일수 있다는 신심에 차넘쳐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혁명세대들처럼 수령에 대한 투철한 혁명정신과 1950 년대 조국수호정신, 백전백승의 투지를 만장약한 정의의 억센 주먹으로 조국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의지로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경축 열병식은 조선사람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영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전면적부흥발전을 가속화하며 반제반미성전에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전승신화를 창조해나갈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대정치군사축전으로 조국청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될것입니다.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사상최고의 경지에 올라선 오늘의 자랑찬 현실, 이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며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력, 무비의 담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대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인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마련된 오늘의 조선의 힘입니다.

제국주의의 횡포한 침략책동으로 하여 세계곳곳에서 전란과 류혈참극이 끊길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의 길에 오를 때에도 우리공화국은 더욱 더 강해지고 우리 인민은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보람차고 긍지높은 생활을 창조할수있었으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전들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우리조국인민들은 수령의 령도아래 비약하는 초고속천리마를 타고 더욱 더 풍요로운 우리국가를 창조하였습니다.

참으로 공화국의 력사는 수령님들의 력사이며 우리 원수님께서 빛내여가시는 휘황찬란한 민족의 력사입니다.

우리재중조선인 전체 청년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로 마련하여주신 혁명무장력, 최강의 국가방위력이 있었기에 공화국에 대한 오늘의 높은 존엄과 영광이 있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국을 위한 사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국땅에 울려퍼지는 인민의 노래 어버이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모두는 조국만을 믿고 원수님만을 따르는 열렬한 애국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재 중 조 선 인 청 년 협 회

주체 112(2023)년 7 월 30 일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류창환 심양시 부지부장

류수와 같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어느덧 78 돐기의 년륜이 새겨진 8.15 조국해방절을 맞이하였다.

이날과 함께 나의 마음속을 새삼스럽게 파고드는 하나의 생각이 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모든 공민들이 조국앞에, 력사앞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삶의 가치가 되고 인생의 보람이 될수 있을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론하기에 앞서 신념에 대해 말하고싶다.

다름아닌 조국에 대한 믿음, 그 조국을 끝까지 받들고 륭성번영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려는 각오와 의지이다.

흩어져 살던 우리 재중조선공민들을 재중조선인총련합회라는 하나의 강력한 조직에 묶어세워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이도록 이끌어준 고마운 조국, 그 참다운 조국이 없이 어떻게 오늘 해외에서 조선공민이라는 값높은 존엄과 크나큰 긍지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 생각할수 있겠는가.

20 성상 강도일제와의 피어린 투쟁으로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굳건한 총대를 벼리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출중하고 세련된 령도,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쥐락펴락하시며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의 활기찬 전진으로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였기에 존엄으로 빛나는 우리의 조국이 있고 주체의 해외공민이라는 우리들의 자부심도 있는것이며 번영을 구가할 민족의 래일도 있다는것, 이 신념을 심장에 새기고 걸음걸음 실천해나가는 길에 삶의 가치, 인생의 보람이 있는것이 아닐가.

당연한 말이겠지만 신념이 강한 인간에게는 극복못할 난관도 넘지 못할 장애도 없다고 본다.

신념이 확고하면 고난과 시련앞에 부닥쳐도 헤쳐나갈 힘과 용기,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아무리 큰 어려움과 난관이 지속된다 해도 얼마든지 그 해결방도를 찾아내기마련이다.

조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그 어떤 광풍이 몰아친대도 애국의 한마음으로 조국을 받들겠다는 신념과 의지, 각오가 굳건할 때 우리 총련합회조직의 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누구나 자그마한 기여라도 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게 될것이며 나아가서 자부할만한 생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미일상전들과 작당하여 악랄한 반공화국적대시책동으로 삼천리강토에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발광하고있다.

이에 대한 나의 립장과 태도는 명백하다.

우리 아버지세대처럼 도발자들이 감히 우리 조국을 건드린다면 일초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설것이다.

결코 빈말, 빈글로만 남기는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지켜싸운 조국을 나도 기꺼이 싸워 지킬것이며 내 아들도 내 뒤를 이어 지켜싸울것이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의 도발광기는 상전들을 믿고 들까불어대는 부질없는 허세와 객기에 불과하다.

허세와 객기의 결말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은 생활속에서도 흔히 목격하게 되는 하나의 만화이고 비극이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조국을 위한 길에 힘과 지혜를 다 바쳐나가자.

요란한 언사나 문구를 첨부하려 하지 않는다.

애국의 한길에서 총련합회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뭉치고 조국에 대한 긍정적인 말 한마디, 고무격려적인 한구절의 글, 좋은 노래 한곡 등 세부적이고 사소한것 모든것이 얼핏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것같지만 각자 모든 성원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표현, 행동, 실천들이 모아지면 바로 무시할수 없는 조직의 힘이고 애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대하의 발원지, 원천은 무수한 작은 샘줄기들과 작고도 작은 시내물이다.

조국에 대한 믿음, 그것을 변함없이 받들려는 각오와 의지라는 공통분모의 기초우에서만 마를줄 모르는 애국의 힘과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

이것이 8.15 조국해방 78 돐을 맞으며 내가 피력하고저 하는 소견이다.

주체 112(2023)년 8 월 15 일　　중국 심양

해방의 날을 맞으며

박홍근 할빈지구협회 부회장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종합적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민족의 존엄이 만방에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오늘 조국해방 75 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8 월 15 일, 력사의 이날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민으로 력사무대에 나서게되였고 우리 조국은 식민지약소국으로부터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하기에 력사의 이날을 맞는 저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된다.

《조국해방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해방의 감격과 환희에 넘쳤던 조국해방을 뜻깊게 맞이하는 잊지 못할 8.15 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0 대에 벌써 조선혁명은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인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20 성상의 피어린 투쟁으로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시여 나라와 민족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고 이 땅우에 자주적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오늘 우리 앞에는 조국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 이룩해야 할 성스러운 민족사적과제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간난신고를 헤쳐오신것은 전 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였지 결코 둘로 갈라진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오늘 해방의 날을 맞는 저희들은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실현을 현명하게 령도하시고 세계정치를 자주의 길로 주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을 반드시 자주통일로 빛내여나갈것이다.

조국해방 78돐에 즈음하여 대성산 혁명렬사릉에 화환 진정

조국해방 78돐에 즈음하여 15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국방성,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화환진정대에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혁명렬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무궁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혁명렬사릉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혁명의 1세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불굴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며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헌신해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이날 혜산혁명렬사릉에 량강도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이 화환을 진정하였다.







백두대지에서 밀, 보리수확 한창

량강도의 농장벌들이 밀, 보리가을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도에서는 8월초에 밀, 보리수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천t의 밀, 보리를 거두어들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시, 군당조직들에서 정치사업의 무대를 들끓는 농장벌로 정하고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벌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밀, 보리가을을 적극 다그치도록 하고있다.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힘있는 구호들과 표어, 속보판들이 농장벌마다에 전개되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울려퍼지는 속에 밀, 보리가을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도에서는 밀, 보리수확을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종합수확기들의 만가동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또한 밀, 보리가 여문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포전별에 따르는 수확시기를 바로 정하고 시, 군별사회주의경쟁도 조직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함께 수확한 밀, 보리수송과 보관에서 사소한 편향이 나타나지 않게 예견성있는 대책을 세우고있다.

대홍단군에서는 종합수확기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낟알허실을 막는데 힘을 넣으면서 매일 많은 면적의 밀, 보리가을을 진행하고있다.

삼지연시와 백암군, 풍서군, 운흥군에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어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다른 지역의 농장들에서도 밀, 보리가을을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주도세밀한 작전밑에 매일 많은 면적의 밀, 보리를 수확하고있다.

도안의 농기계작업소들에서는 뜨락또르와 종합수확기들의 만가동에 필요한 부속품보장에 힘을 넣어 밀, 보리가을이 일정대로 진척되게 하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밀, 보리가을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인민의 행복넘치는 마전해수욕장



갈매기모양으로 특색있게 형상한 마전유원지 정문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없이 흐르고있다. 구명대를 멘 아이들과 학생들, 각양각색의 계절옷을 떨쳐입은 사람들…말그대로 인산인해이다. 전망대에 오르면 백사장, 바다물, 소나무숲, 호수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마전경치가 황홀하게 안겨와 마치 한폭의 그림같이 안겨왔다.




해방전 삼밖에 자라는것이 없어 지명도 마전이라 불리우게 되였다는 곳,

그러던 이 마전이 어떻게 되여 당당히 손꼽히는 동해의 이름난 명승지로 전변되게 되였던가.

돌이켜보면 사람의 눈길조차 미치지 않던 이곳을 인민의 명승지로 꾸려주시고 더욱 빛내여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였다.

전후 어느날 일군들로부터 이곳에 조선소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배를 무어내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에게 즐거운 문화휴식터를 마련해주는것이라고, 조선소부지를 다른 곳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마전해수욕장의 터전을 잡아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여러차례나 이곳을 찾아오시여 해수욕장을 우리 인민의 정서에 맞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꾸릴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몇해전 5월말 마전해수욕장을 찾으시여 이 해수욕장은 넓은 모래불이 펼쳐져있고 잔디밭과 해당화밭이 있으며 소나무숲도 우거져있어 주변환경과 분위기가 대단히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한 바다물과 맑은 공기, 해빛과 아름다운 경치는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뿐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매우 좋다고, 인민들이 즐겨찾는 해수욕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려주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당이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며 필요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손길이 있어 이름없던 마전지구가 우리 인민들 누구나 즐겨찾는 명승지로 더 훌륭히 전변되게 되였다.

그 손길에 떠받들려 백사장엔 행복의 파도가 끝없이 출렁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랑의 노래되여 정답게 울려퍼지니 자연경개 아름다와 명승이라더냐, 인민을 위한 그 사랑이 하늘에 닿아 로동당시대 절승으로 대대손손 빛나는것 아니랴. /김세령





동해의 수산물가공기지가 전하는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의 날과 달들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끝없는 로고와 헌신으로 수놓아져있다.

동해의 수산물가공기지인 갈마식료공장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안겨주시려고 바치신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갈피갈피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주체103(2014)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조업한 갈마식료공장을 찾으시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수산물가공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기 위해 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명당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였으며 그 이후에는 몸소 《갈마식료공장》이라고 명칭까지 달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리고 주체103(2014)년 6월 새로 건설한



공장을 찾으시고 조업준비정형도 알아보시며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물고기가공기지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리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조차 할수 없는 갈마식료공장의 오늘이였다.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는 공장일군들은 공장건설로부터 조업에 이르기까지 바치신 그이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이 되새겨져 한없는 고마움으로 격정을 금치 못했다.

공장전경도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건물의 외벽타일을 가리키시며 공장이 이제야 멋있게 되였다고, 시공을 깨끗하게 잘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년간생산량도 알아보시고 그에 따르는 수산물보장대책도 일일이 가르쳐주신 그이께서는 공장건물이 전번에 와보았을 때보다 완전히 때벗이를 하였다고 거듭 평가하시며 종합조종실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기술자로부터 콤퓨터화면에 현시된 승화건조공정과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고나서 경영관리를 더욱 정보화하여야 한다고, 이 공장은 물고기가공공장의 본보기공장으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어 콤퓨터화면으로 현시되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도 주의깊게 보시며 식료가공에서는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에서뿐 아니라 위생안전성에서도 흠잡을데 없는 수산물가공품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세계는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었다.

1차가공실에 들리시였을 때에는 생산자들이 위생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젓갈가공실에서는 젓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일깨워주시였다. 또한 랭동진공건조실에 이어 선별포장실에 이르시여 포장을 잘하도록 방법을 연구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몸소 말린명태의 맛까지 보아주시며 정말 맛이 있다고, 말린명태는 이렇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표가 붙은 맛좋고 영양가높은 수산물가공품들이 쏟아져나와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더해줄 그날을 그려보시며 수지포장곽을 생산하는 사출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은 물론 과학기술보급실, 회의실, 합숙휴게실도 돌아보시면서 시종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공장을 대표할수 있는 독점지표개발에 더욱 힘을 넣으면서 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함으로써 인민생활에 실지 이바지하는 공장이 되게 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동해지구에 일떠선 수산물가공기지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하늘같은 사랑이 깃들어있다.

산화배소구단광수직로가 새로 건설된다

공화국에서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청진제강소에서 산화배소구단광수직로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산화배소구단광수직로가 새로 건설되면 제강소의 주체철생산능력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게 된다.

내각과 금속공업성, 건설건재공업성에서는 청진제강소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에로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내각의 째인 작전에 따라 해당 성들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걸린 문제들을 솔선 풀어나가면서 건설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고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제기되는 자재와 물자보장에 힘을 넣어 건설에 동원된 단위들이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있다.

청진제강소와 금속공업성 강철설계연구소의 설계집단은 건설속도를 높이면서도 많은 철강재를 절약할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들을 작성하였다.

특히 청진제강소의 설계집단은 같은 면적에서도 건조능력을 종전보다 2배로 높일수 있게 하는 등 에네르기절약형, 부지절약형, 로력절약형의 수직로를 설계하기 위해 피타는 사색과 열정을 바쳤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청진제강소능력확장공사에서도 힘있는 건설부대,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척후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청진제강소의 로동계급은 부족되는 자재와 물자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면서 설비장치물제작과 수직로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기계공업성에서는 대상설비보장을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알곡여물기촉진제생산에서 혁신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에서 올해 강냉이농사에 필요한 알곡여물기촉진제생산을 끝내고 전국의 농업부문에 보내주었다.

평양나노제품생산소 소장 황영일을 비롯한 분원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알곡여물기촉진제는 알곡작물의 성장과 발육과정을 촉진시켜 여무는 시기를 앞당기게 하고 열매가 빨리 익게 하는 작용을 하는 성장조절제로서 지난 몇해동안 여러 단위에 도입되여 그 우월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증되였다.

올해 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앞그루농사에서부터 알곡여물기촉진제가 실질적인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분원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이 모두 떨쳐나 다량생산공정을 확립하고 농업부문 일군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전국적인 수요에 따르는 촉진제 전량을 지난 5월중순까지 성과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전국각지의 농장들에서 밀, 보리의 여무는 시기를 당기고 천알질량을 늘이며 수분함량을 낮추어 수확후 부패변질을 막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앞그루밀, 보리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분원의 책임일군들은 과학자,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더욱 분발시켜 강냉이농사에 필요한 알곡여물기촉진제생산에 련이어 진입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의 적극적인 조직정치사업에 고무된 평양나노제품생산소의 과학자,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낮과 밤이 따로없이 알곡여물기촉진제생산을 다그쳤다.

올해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분원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생산된 제품에 대한 포장작업에 자기들의 지혜와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그리하여 보름동안에 전국적인 수요에 따르는 수백t의 알곡여물기촉진제생산과 제품포장을 완전히 결속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농업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지난 6일까지 전국의 도, 시, 군들에 보내주는 사업을 전부 끝내였다.

지금 나노공학분원에서는 올해 벼농사에 필요한 알곡여물기촉진제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새집을 받아안은 농업근로자들의 격정의 목소리

온천군 금성농장 제1작업반 농장원 리영애



새집의 문패

희한한 새집에 보금자리를 펴는 날 나는 선뜻 문손잡이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새집의 문패에 새겨진 나의 이름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기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농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

원들의 살림집문제를 두고 은정깊은 교시를 주시였다고 합니다.

그 사랑속에 농장마을에는 새 문화주택들이 일떠섰고 그때 나의 아버지도 새집의 주인이 되여 자기 이름을 쓴 문패를 제손으로 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쌀로써 보답할 결심이 더욱 굳어져 포전마다에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장에 뿌리를 내린 내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덕으로 새집의 주인이 되였으니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새집의 문패를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패야말로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대를 이어 사랑만을 받아안은 우리 농장원들의 복받은 삶을 전하는 증표라고 말입니다.

나는 피와 땀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해마다 이 땅에 반드시 풍년낟가리를 쌓아올림으로써 당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은파군 초구농장 제4작업반 농장원 차윤순

희한한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 온천군 금성리에 일떠선 단층, 소층, 다락식의 살림집들은 정말이지 희한하다는 말만으로는 다 표현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칸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하여 농장원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져있으며 집주변에는 과일나무들까지 뿌리내려 마을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습니다.

어찌 살림집뿐이겠습니까.

수백세대의 문화주택들과 함께 일떠선 문화회관, 진료소, 종합편의시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도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우리 농장예술소조원들은 저녁이면 문화회관에 모여 당의 은정속에 날로 꽃펴나는 농업근로자들의 긍지넘친 생활에 대해 노래부르고 종합편의시설인 금성원에서는 농장원들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우리 농장원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려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은 이처럼 살림집들만이 아니라 문화후생시설들에도 그대로 응축되여있습니다.

하기에 우리들은 농촌진흥의 새시대에 사는 농업근로자들답게 농사를 잘 지으며 더욱 문명한 생활을 꽃피워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지효성비료생산기지 건설, 생산에 진입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에서 원료매장량이 풍부한 흥원군에 지효성비료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고 생산을 늘여 농작물생육후반기비배관리에 리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 영농물자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효성비료는 일반비료에 비하여 효과성이 좋아 농작물의 정보당수확고를 높일수 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 흥원군에 지효성비료생산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일군들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 설비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지효성비료생산기지를 빠른 기간에 건설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였다.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불리한 조건을 과감히 극복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트라스제작을 힘있게 다그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지붕공사와 외부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었다.

건축공사가 진척되는데 맞게 도에서는 벨트콘베아와 회전원통형분쇄기 등의 설비제작과 조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원료확보를 비롯한 생산준비도 예견성있게 갖추어나갔다.

지효성비료생산기지건설을 끝낸 도에서는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데 이어 생산에 들어갔다. 특파기자 김경철

교육연구원 준공



교육과학연구사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당의 교육강국건설구상실현에 이바지하고 나라의 교육을 과학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가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사랑,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교육연구원이 현대적으로 건설되여 준공하였다.

연구원에는 고등교육연구소,보통교육연구소 등이 꾸려져있으며 교육과학연구성과전시장과 문화후생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교육연구원이 나라의 교육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중앙교육과학연구기관,교육정책자문기관답게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교육과학연구중심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준공식이 16일에 진행되였다.

준공식에서는 내각부총리 전승국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교육연구원을 돌아보았다.(끝)



현대적인 버섯연구기지가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버섯재배공업화의 새 력사를 펼쳐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중앙버섯연구소가 새로 일떠선지 １０년이 되였다.

얼마전 우리는 현대적인 버섯연구기지에서 꽃펴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싶어 이곳을 찾았다.

아담하고 산뜻하게 단장된 멋쟁이건물과 소담한 버섯조각들로 장식된 야외휴식터가 있는 연구소는 첫눈에도 버섯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는것이 알리였다.

구내에 들어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일군은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언제나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연구소에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때로부터 벌써 １０년이 되여온다고 하면서 추억을 떠올리였다.

찬비내리는 궂은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준공을 앞둔 연구소를 찾으신 그날 버섯연구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가 일떠서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날 그이께서는 버섯연구와 생산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며 이곳 연구사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연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버섯품종들을 육종도입하고 지역별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대용원료를 버섯생산에 리용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일군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다녀가신 전자도서실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여기서는 수만건의 과학기술자료들로 자료기지를 구축하고 최신연구성과들을 현실에 적극 도입할수 있도록 콤퓨터망에 의한 먼거리기술보급체계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었다.마침 여러명의 젊은 연구사들이 최신버섯재배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있었는데 버섯과학의 세계를 한치한치 점령하기 위해 탐구하고있는 모습이 참으로 미더웠다.그들의 사색을 방해할세라 조용히 전자도서실을 나선 우리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여러 실험실과 연구실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일군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는 매 품종을 간별할수 있는 유전자증폭장치와 전기영동장치를 비롯하여 없는것이 없다고 한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는 새로운 버섯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고 활성이 높은 원종균을 개발생산하여 전국각지에 공급해주는 연구소의 사명과 임무에 대해 리해를 깊이할수 있었다.그럴수록 과학기술에 의거한 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로고가 어려와 눈굽이 뜨겁게 젖어왔다.

몸소 버섯연구소건설을 발기하시고 설계와 시공,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을뿐 아니라 연구소의 이름도 지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였다.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실험실과 연구실을 돌아보는 우리의 눈앞에 창조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연구사들의 열정넘친 모습도 안겨왔다.

최근에만도 이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약용버섯을 리용하여 불로초발효초꿀당액, 고슴도치버섯차, 령지버섯분해가루 등 여러가지 건강식품과 약품을 개발생산하였으며 여러 전시회, 축전에 출품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있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특색있다고 평가하신 버섯재배시험장에도 들려보았다.

훌륭히 꾸려진 시험장에서 모양과 색갈이 서로 다른 갖가지 버섯들이 키돋움하는 광경은 우리로 하여금 머지않은 앞날에 보다 풍성해질 식생활문화를 그려보게 하였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수확성과 영양가가 높은 새로운 버섯품종들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었다.

우리는 중앙버섯연구소가 하늘같은 사랑을 길이 전해가며 나라의 버섯생산을 과학기술로 굳건히 담보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안고 이곳을 떠났다.

대외관계

duiwaiguanxi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

나는 조선해방 78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뿌찐대통령동지와 그리고 로씨야련방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로씨야인민의 소중한 아들딸들인 붉은군대 장병들은 국제주의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던 파시즘을 격멸한데 이어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성전에 용약 떨쳐나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세계인민들의 민족해방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유명무명의 붉은군대 용사들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가렬한 조선해방전투들에서 흘린 피는 조선의 산야들에 고이 깃들어있으며 그들이 발휘한 영웅적희생정신은 조로친선의 력사와 더불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준엄한 나날들에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전투적우의와 단결은 조로관계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되였으며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전횡과 패권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불패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습니다.

나는 선대수령들에 의하여 마련되고 력사의 검증속에서 다져진 조로사이의 친선단결이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백년대계의 전략적관계로 더욱 승화발전될것이며 공동의 목표와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려정에서 우리 두 나라가 서로 강력히 지지련대하면서 언제나 필승불패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평화를 수호하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장거에 나선 로씨야정부와 군대,인민에게 전투적경의를 보내면서 아울러 뿌찐대통령동지가 건강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112(2023)년 8월 15일

평 양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뿌찐이 15일 축전을 보내여왔다.

축전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조선해방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이 명절은 일본식민지통치로부터 귀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함께 싸운 붉은군대 군인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의 용감성과 영웅주의의 상징으로 되고있습니다.

바로 그 준엄한 투쟁의 시기에 마련된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선린관계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초로 되였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가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그리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전반의 안정과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쌍무협조를 강화해나갈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며 아울러 귀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8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8돐에 즈음하여 8월 15일 해방탑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해방탑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을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진정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쏘련군렬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동지,외무성 부상 임천일동지,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영동지,관계부문 일군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붉은군대 장병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정신과 전투적위훈을 추억하며 렬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였다. (끝)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jiating

공화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떤 물리적대응도 불사할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8월 17일 미국이 전략정찰기를 조선동해 우리측 경제수역상공에 침범시켜 공중정탐행위를 또다시 감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군전략정찰기는 17일 새벽 5시 38분부터 6시 37분사이에 원산 동쪽 520㎞부터 단천 동쪽 430㎞까지의 해상상공을 반복선회비행하면서 3차에 걸쳐 우리측 경제수역상공을 최대 14㎞ 깊이까지 무단침범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동부 및 종심지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지난 7월 28일 미군전략정찰기들이 우리측 경제수역상공을 무단침범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한지 불과 20일만에 이루어진 위험한 군사적 도발행위이다.

제기된 정황과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즉시 동부반항공사단 추격기들을 미군 전략정찰기의 침범공역에 긴급출격시켜 대응경계비행을 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아군추격기들의 대응조치에 의하여 미군전략정찰기는 7시 15분경에 퇴각하였다.

아군추격기들은 오전 9시까지 미군전략정찰기의 재침범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대응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반복되는 적들의 도발적인 공중정탐행위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측 경제수역인 원산 동쪽 450㎞계선에 신형반항공미싸일을 탑재한 함선을 상시전개시켜 문제의 공역에서 미군전략정찰기들의 무단침범행위를 저지시키고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구축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조선동해경제수역상공이 철저히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의 한 부분이라는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우리 군대는 공화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떤 물리적대응도 불사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8월 18일

평양

정세악화의 주범은 누구인가

지난 21일부터 미국과 괴뢰패당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지 자유의 방패》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전쟁시연회이고 주권국가의 《정권종말》을 총적목표로 정하고 벌리는 무모한 침략성 도발행위이다.

문제는 괴뢰역적패당이 이번 전쟁연습을 광고하면서 《북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라느니, 《방어위주의 연습》이라느니 하는 망언을 또다시 쏟아내면서 제놈들의 침략적흉심을 가리워보려고 갖은 말장난을 다 피워댄 사실이다.

《을지 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기 며칠전에도 괴뢰합동참모본부것들은 남조선강점미군사령부것들과 이른바 《공동발표회》놀음을 벌려놓고 《이번 연습 및 훈련은 유사시 남조선방위를 위한 강력한 련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증대되는 북의 군사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것》이라느니, 《변화되는 위협과 안보상황을 반영한 연습대본에 기초하여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할것》이라느니 하며 이번 전쟁연습의 도발적, 침략적성격을 가리워보려고 꾀하였다.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위협》을 구실로 범죄적인 침략전쟁연습을 합리화하려는 호전광들의 궤변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해마다 괴뢰지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벌어지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은 물론 크고 작은 불장난들은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북침선제공격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적들이 공개한 《을지 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의 규모, 참가대상, 훈련내용 등을 놓고보아도 이번 전쟁연습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성격을 내포하고있는가를 명백히 알수 있다.

실제로 적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군사연습으로서 이 기간에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은 30여건의 련합야외기동훈련이 벌어지게 된다고 떠벌였다.

현실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장본인,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주범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최근 남조선언론들과 각계층속에서 《력대로 미국과 국군은 이 땅에서 전쟁훈련을 합리화하기 위해 <북의 위협>, <방어>라는 명분을 수십년간 내세워 왔다. 오늘날에 와서 과연 그것을 진실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동원되는 무장장비, 훈련규모, 훈련내용만 봐도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주로 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민생은 사상최악에서 허덕이는데 윤석열정부는 외세와 전쟁놀이에만 신경이 가있다. 끊임없는 전쟁놀이로 경제, 민생은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졌고 국민은 화약내만 맡으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세상. 당장 갈아엎자!》와 같은 분노의 웨침이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사대매국, 전쟁책동을 단죄규탄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얼마전 서울에서 진행된 《8.15범국민대회》에서 각계층이 윤석열역도의 사대매국, 전쟁책동을 강력히 단죄규탄하였다.

대회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비상시국회의》, 《정전 70년 한반도평화행동》, 《한일력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윤정부는 한미일군사동맹체제에 집착하며 남조선을 신랭전한복판에 몰아넣고있다.》, 《정부는 신랭전련대를 위해 대미추종외교로 일관하며 력사정의를 해체하고 핵오염수방류를 용인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한미일동맹은 <가치동맹>의 미명하에 미국과 일본의 리익만을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패권을 위해 진영대결을 강요하는 전쟁동맹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책동을 단죄규탄

남조선언론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서울에서 괴뢰야당들과 93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일본방사선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종교환경회의》 등이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해양방류책동을 단죄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인체에 대한 위험조성과 환경, 생태계파괴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수 없다.》, 《핵과 관련한 모든 재앙이 몇백년후에 끝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전되기때문이다.》고 하면서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핵오염수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여야 한다.》,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꾸시마핵오염수투기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옳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일본의 불법적인 핵오염수해양투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로 인한 인권침해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유엔인권리사회에 제출하였다.

한 종교인은 《후꾸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와 관련해 여러 론의가 있었고 시민사회와 정당의 요청이 있었으나 정부가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유엔인권리사회에 진정을 제출하게 된것이 종교인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후꾸시마핵오염수가 해양에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당이 지혜를 모아나갈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대의 꿈 따라 돛을 올린 20년, 그리고 새로운 출항

'밀산시조선족종업원의 집' 성립 20주년 축제 성황리에

'밀산시조선족종업원의 집' (이하 '종업원의 집'으로 략칭) 성립 20주년 축제가 최근 밀산시 체육중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였다.

밀산시위, 시정부 및 조선족 향촌 유관 령도들과 래빈, 밀산시조선족단위, 단체의 대표 그리고 광범한 군중들 등 300여명이 축제에 참석해 '종업

원의 집' 20년 발전려정을 함께 견증하고 성공의 희열을 함께 나누었다.

축제는 우렁찬 '밀산시조선족종업원의 집' 찬가 속에서 서막을 열고 경축대회와 회보공연 두개 부분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최공철 현임 회장이 '종업원의 집' 설립취지와 조직건설, 현황, 성과 등 면에서 20년 로정을 심도있게 총화했다. 총화보고에서 최공철 회장은 "조선족1급사단법인으로서의 '종업원의 집'은 2003년 8월에 성립되여 선후로 378명의 회원을 보류해 왔으며 현재 200여명 회원, 5개 소조의 규모와 270여평의 활동실을 가지고 있다. 20년래 '종업원의 집'은 당의 기본로선, 방침정책의 지도하에 시종 '단결, 진보, 문명, 건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아교육, 자아관리, 자아복무의 원칙하에 규범화된 장정과 규장제도를 제정하고 활동을 제도화, 경상화하면서 밀산시조선족사회를 묶어세우고 리드해 나가는 민간단체로, 조화로운 사회대가정으로 성장했다. 회원들은 장기적인 학습을 겸비한 취미, 오락 및 사회교육 등을 통해 평생학습과 여가문화활동을 영위해 나가며 사회봉사와 실천으로 사회성을 키우고 시대에 뒤떨어 지지 않는, 활기차고 창조적인 중로년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회의에 젖어 말했다.

이어 밀산시위, 시정부 령도 강화와 래빈 축사가 있었다. '흑룡강신문' 총편집 박영만이 래빈들을 대표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그는 축사에서 "'종 업원의 집'은 격변기 시대의 흐름속에서 민간단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리행해 나가며 젊음과 활력의 20 주년을 맞이하게 되였다. 20년래 '종업원의 집'은 공존, 화합이라는 리념을 가지고 회원들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다양한 실천에 앞장섰고 현지 조선족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발걸음을 다그쳐 왔으며 주류사회 속의 건전한 사회단체로,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 걸어온 20년은 시대의 꿈을 따라 돛을 올려 항행한 격정의 세월이 였고 나아갈 20년은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과 정체성을 지켜가는 새로운 출항일 것이다" 라고 높이 평가했다.

행사는 이어 성공의 희열을 공유하는 특별 시간을 마련했다. 리송남 등 4명에게 '명예회원' 상을, 김흥석 등 5명에게 '장수의 별' 영예를, 홍영식 등 6명에게 특수공헌상을, 10명의 회원들에게 영예회원상을 시상했다.

밀산적 저명한 서법가 최원택선생의 서예작품 증정식과 청도조선족교육문화원(원장 김청호)과의 자매결연 체결식은 행사에 풍성한 이채를 더 해주었다.

알심들여 준비한 문예회보공연은 축제를 고조



에로 이끌었다. '자랑찬 20년, 보람찬 성과', '따뜻한 집, 행복한 밀산', '밝은 꽃길, 희망찬 미래' 등 세개 편장으로 구성된 공연은 풍부한 종목과 깊은 문화내함, 다양한 기교, 화려 한 복장으로 무대를 아름답게 장식했으며 신명나는 흥겨운 공연 한마당을 연출했다. 23명으로 구성된 '종업원의 집' 악단의 기악합주와 80여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대합창은 무대를 활기와 활력으로 넘치게 했으며 장고춤, 부채춤 등 전통무용과 북병창, 해학무극 (舞剧) 및 각종 형식의 노래와 시 랑송 등 정채로운 종목들은 고조에 고조를 더하며 시각성찬으로, 문화대찬으로 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밀산시조선족로년협회, 밀산시조선족은하예술단의 찬조 공연과 원 계서시극원의 국가 2급 연주가 리왈룡 선생의 색스폰 연주는 매력성과 신비성, 예술성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으며 무대를 밀산시조선족사회의 큰 축하잔치로 격상시켰다.

뜻이 있는 곳에 꿈이 있고 꿈이 있는 곳에 창조가 있기 마련이다. '종업원 의 집'은 '문화봉사의 집'이기도 하다. 지난 20년간, 원 밀산시인민정부 맹고군 부시장의 기획하에 '종업원의 집'은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분산된 인적, 문화적 자원을 통합 활용하고 집단지혜를 모아 전통문화 발굴과 정리 등 면에서 많은 소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밀산조선족백년사', '흥개호반에 피여난 진달래', '밀산조선족촌사', '영원한 기념비', '밀산조선족촌지', '흥개호' 등 19권의 책을 펴냈으며 20주년을 맞이하며 '꿈을 좇아 달려온 세월' (追梦岁月) 이라는 대형기념사진첩을 편집해 냈다. 사진첩은 '종업원의 집' 20년 로정에 대한 재조명이고 립체기록이다. 원 밀산시인대 동장수 부주임, 김귀복, 김성 선생님의 공동노력으로 편집된 '고향의 노래' 가요책도 20년 축제에 큰 선물로 되였다.

'종업원의 집' 성립 20주년 축제는 김장명 职工之家顾问) , 태룡활 (密山太龙电器有限公司 总经理) , 리송남 (牡丹江奥峰3新材料科技有限公司 总经理) 그리고 수많은 애심인사들의 물심량면으로 되는 적극 협조와 지원을 받았다.

/피금련 특약기자

할빈시조선족녀성친목회, 상지시 하동조선족향 북흥촌 수재민 위문



지난 8월 18일, 할빈시조선족녀성친목회는 수재 피해가 엄중한 상지시하동조선족향 북흥촌으로 가 수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동포애를 전했다.

올들어 중국 전역을 휩쓴 홍수로 상지시 조선족마을은 최근년간 가장 엄중한 피해를 입었다. 지금까지 10여채의 가옥이 무너지고 수천명의 주민이 대피하였으며 대면적의 농작물이 침수되여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재민들이 어려운 고비를 넘도록 돕기 위해 할빈시조선족녀성친목회에서는 의연금을 모으고 생활용품을 준비한 후 위문팀을 구성하여 직접 조선족마을로 가 피해 군중들을 위로하였다. 그들은 5L짜리 생수 27상자, 500mL짜리 생수 21상자, 콩기름 100통 등 9400원에 상당하는 생활필수품과 의연금을 생활이 어려운 군중들에게 전달하였다.

할빈시조선족녀성친목회 최경매 비서장은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상지시 하동조선족향 북흥촌 동포들에 대한 정은 매우 깊습니다.

우리의 기부금은 많지 않지만 고향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매우 진지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미약한 힘이나마나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과 고향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다시 일떠서려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파손된 삶의 터전은 인차 다시 건설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위문팀은 수재민들의 집을 찾아 그들에게 직접 생활용품을 가져다주면서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라고 격려했다. 수재민들은 녀성친목회 회원들이 가져다준 도움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할빈신문



93세 항미원조 참전 군인 김봉수 로인의 인생이야기

풋풋한 소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그 사진은 김봉수로인의 20세를 기록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입대해 1947년부터 1949년까지 해방전쟁에 참가했고 20세의 나이에 항미원조전쟁에 참전했다는 김봉수로인이다.



겹겹이 쌓인 영예증서들과 묵직한 훈장들은 그가 걸어온 삶의 궤적이자 기록들이다.

기록으로 남았고, 또 더러 기록되지 못한 지나온 세월이 돌아보면 근 한세기가 된다.

'8.15' 로인절을 맞아 연길시에 살고 있는 1930년생, 만 93세의 김봉수 할아버지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며 한 로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한다.

73년전에 남긴 사진 한장

많은 일들이 잊혀지고 희미해졌지만 아직도 어제일처럼 생생한 기억들도 있다.

"항미원조 참전을 앞두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소. 이제 곧 전쟁터에 나가게 되니 주소와 사진값을 남겨주며 그리로 보내줄 수 없겠냐 했소. 과연 내가 이 사진을 받아볼 수 있을지…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보내왔더라구. 그 사진이 이 사진이요."



"1950년 8월에 지원군 전략물자 수송차 운전사로 편입되였소. 전 군의 후방 공급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아 안전하게 물자를 운송해야 했소."

적의 기관총 소사와 포격, 적기의 폭격이 매일이다 싶이 이어지던 전쟁의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경계였다. 임무수행중 포탄이 근처에 떨어지며

폭발하는 바람에 그의 왼쪽 고막이 터졌다. 그

사고로 왼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왼쪽 귀는 완전히 들리지 않고 오른쪽 귀도 그닥 성치 않아 보청기를 껴야만 들을 수 있소." 보청기를 꺼내보이며 김봉수로인은 그래도 자신은 새 중국의 많고 많은 영광의 순간을 목격하지 않았냐며 미소를 지었다.

항미원조 대공(大功) 상장과 공로메달들은 김로인이 걸어온 인생 려정에 대한 빛나는 기록이다.

지금도 여열을 발휘하고 있는 로당원

군대를 전역한 후 배치된 석현종이제조공장에서 소방대 대장을 맡아하던 그는 뚜렷한 성과를 내며 길림성공안청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그 공을 인정받아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으로 전근했다. 그는 1984년도에 연변주소방지대에서 리직



(离休)하기까지 일터에서 본분과 직책을 다한 본보기였다. 리퇴직 후에는 연변군대간부휴양소에서 제2의 인생을 펼쳤다.

"김봉수로인은 그야말로 성실과 근면의 대명사로 불릴 만한 분이지요. 그는 해방전쟁과 항미원조 전쟁에 나가 새중국의 창립과 보가위국을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싸운 혁명선배이고, 새중국이 창립된 후 군대를 전역하여서는 일터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일했던 선줄군이였으며, 리직한 후에는 당사학습교양 강연을 다니며 지금도 여열을 발휘하고 있는 로당원입니다." 옆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연변군대간부휴양소새일대관심사업위원회 최동호 주임은 이렇게 김로인을 평했다.

혁명선렬들의 사적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일이라면, 우량한 전통을 전승하고 발양하는 일이라면 로공산당원의 분투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려고 한다.

소학교, 회사, 기관단위나 부대의 초청으로 강연을 다닌 지도 어언 10여년이 된다. 이젠 90세가 넘는 고령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일이지만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 한번 거절한 적 없다. 혁명선렬들의 사적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일이라면, 우량한 전통을 전승하고 발양하는 일이라면 로공산당원의 분투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김로인. 간고분투와 성실근면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은 그 어떤 자리에서, 그 무엇을 하든 대강대강 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생활을 열애하는 락관적인 여생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었지만 김로인은 현재에 충실하고 생활을 열애하는 락관적인 분이다. 젊은이들 못지 않은 열정으로 탁구, 당구, 스케이팅 등 여러 운동 종목을 두루 섭렵했는가 하면 로년조 시합에 나가서 상을 꽤 휩쓸기도 했다. 지금은 2시간 동안 서서 치는 문구도 끄떡 없다며 취미를 묻는 질문에 말보따리를 풀었다.

"인생은 즐기는 자의 몫"이라는 말처럼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김로인은 거실에 크게 걸어둔 자신 사진 작품을 설명할 때 그렇게 즐거워보일 수가 없었다.

<중국고속철 연변구간 첫 운행>이라는 제목의 사진이다. 2015년, 그때 나이 85세의 김봉수로인은 연변에 끝내 고속철도가 개통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순간을 꼭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다.

"연변에 고속철이 통하고 첫 운행이죠. 훈춘방향으로 가는 첫차였는데 이 순간을 포착하려고 고속철이 지나가는 연길 북쪽 언덕우로 올라가 둬시간 기다렸지요." 체육 등 방면의 취미외에도 사진 촬영을 무척 즐기는 김로인은 사진촬영으로도 수차 상을 받은 적 있다.

김봉수로인은 자신이 직접 채소를 사다가 료리도 하고 백화점에 가 쇼핑도 하며 손군들에게 축하 선물을 하는 멋쟁이 할아버지이고 "저번날에 성도에서 갓 페막한 세계대학생하계운동회에서 중국이 메달 순위 1위를 획득"했더라며 열점 이슈와 사회관심사에도 능통한 '척척박사'이기도 하다.

배움에 멈춤이 없고 건강관리에 게을리하지 않으며 만사에 적극적인 자세가 곧 김봉수로인의 장수비결이자 행복한 로후생활을 즐기는 삶의 지혜가 아닐가 싶다.

근 한세기의 세월이 함축된 김로인의 인생이야기는 시대의 발전사를 엿볼 수 있는 한편의 '력사이야기'임과 동시에 건강한 백세시대를 대비하고 또 백세시대가 더는 머나먼 미래가 아님을 보여주는 한편의 '건강드라마'이기도 하다. /길림신문

희소식! 연변대학 작물생물육종팀, 새로운 벼품종 육성



습근평 총서기의 종자산업 부활전에 관한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락착하고 종자산업진흥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관건적 절점에 연변대학 '작물생물육종팀'은 여러 세대에 걸친 연구와 난관공략 끝에 오송권 교수의 지도하에 새로운 벼품종 '연대 802'를 육성했는데 이는 기념비적 의의를 가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벼품종 '연대 802'는 고수확, 고품질, 높은 결실률 및 적응력이 넓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쌀품질이 국가 2급 표준에 도달했다. 이 품종의 심사통과로 하여 연변대학은 과학기술을 통해 길림성 '천억근 량식'프로젝트와 '향촌진흥'전략에 힘을 보태게 되였다. 이 중요한 연구결과는 연변대학이 관련 학과 령역에 들인 공을 진일보 반영하고 학교 과학연구의 풍부한 성과를 보여주는바 학교 관련 학과의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및 사회 건설에 두드러진 기여를 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잠들 수 없는 두만강을 끼고 '꿈틀'하는 '버들방천'



버드나무가 강뚝을 이루는 그림 같은 풍경이였던 그곳, 그 푸른 숲이 궁극적으로 '방천'이라는 지명으로 남게 되였다.

올 상반기에만 이 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수로 35.45만명이다.

립추가 지난 방천엔 지금 가을 해빛이 부서지고 있다. 20여년 전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던 '오지마을'이였던 방천은 지금 밀려드는 관광객 맞이로 분주하다.

마을에 들어서면 41채의 깔끔한 민박집이 눈에 안겨온다. 민박집은 조선족 전통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엮어 지어졌다.

마을 입구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유난히 정원이 예쁜 민박집이 눈에 띈다. 살짝 열려진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니 각종 꽃들과 잘 가꾸어놓은 잔디밭에 시선을 뺏기고 만다. 이때 빨래감 손질에 여념이 없던 민박집 주인장 김해련씨가 반갑게 맞아준다. 몇년째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마을 촌민인 그녀는 민박과 어업을 통해 해마다 7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단다.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에게서 서로 다른 문화를 배워가는 재미가 있어요."

다녀간 사람들이 정성스레 적어준 방명록을 꺼내보이는 그녀, 아기자기한 정원을 가진 느긋한 느낌의 민박은 여유로워보이는 주인장을 꼭 닮아 있었다.

이 마을 '토박이'인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만혁은 훈춘에 고속철도가 정식으로 개통된 2015년 9월 20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농민대표로 훈춘역에서 발차하는 첫 고속렬차에 올랐던 때를 기억하며 그는 "훈춘에 고속철도가 통하는 날도 오더라구요. 마을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고속철도 덕을 톡톡히 봤지요."라고 감개무량해한다.

아니나 다를가, 그해 국경절 황금련휴기간에 방천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수로 12만 6000여명에 이르며 기록을 돌파했다.

개구쟁이들이 두만강에 뛰여들어 물장구를 치던 일은 이젠 옛말이다. 오로지 고기잡이가 생업이였던 어촌마을도 이젠 옛말이다.

2.61억원이 투입된 마을 건설은 2017년부터 시작되였고 2019년부터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2022년 코로나 영향에도 이 마을의 촌 집체경제 수입은 60만원을 웃돌았고 촌민들의 인당 년평균 소득은 7만원에 이르렀다. 마을은 '중국 소수민족특색마을', '중국 아름다운 휴양 마을'로 선정되였고 첫번째 성급 향촌관광중점촌에 입선했으며 길림성 향촌관광 10대 정품농촌과 두번째 전국 향촌관광 중점촌 명단에 올랐다.

올 상반기에만 이 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연인수로 35.45만명이다. 올해 마을은 '마을과 기업의 협력' 운영모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기업과 함께 려행사를 설립하고 기업화 운영, 관리에 들어갔는데 이 프로젝트 추진으로 해마다 20만원의 촌 집체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비여있는 집을 리용해 관광객 맞이에 나섰고 임대 수익은 려행사와 촌민들이 4대6 비률로 나눈다. 촌민들은 또 관광 주변산업을 개발하고 마을의 특색 수산물과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을 늘이고 있다.

방천마을의 '마을과 기업의 협력' 운영모식은 성공적으로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촌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현재 방천마을은 국가5A급 관광지 기준에 따라 업그레이드 및 개조중에 있다.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방천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동방의 첫 마을'이라 불린다. 마을이 형성된 건 청나라 동치 년간, 방천으로 불리기 시작한 건 청나라 광서 33년부터이다. 당시에는 '버들방천'으로 불렀다. 1938년 장고봉사건 이후 이곳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 이전되였고 1947년에야 '변방의 산천'이란 뜻의 방천촌으로 재건되였다. 1957년 두만강물이 범람하며 촌민들이 안쪽으로 이주했고 1965년 촌민 강태원이 18명 조선족당원을 인솔해 다시 입주하면서 오늘날의 방천으로 발전했다.

버들방천, 즉 버드나무가 늘어서있어 강뚝을 이루는 그림 같은 풍경이였던 그곳, 그 푸른 숲이 궁극적으로 '방천'이라는 지명으로 남게 되였다.

'닭 울음 소리에 3국이 깨여나고 개 짖는 소리에 3강이 놀라며 꽃이 피면 이웃나라에도 향기 풍기고 웃음소리 3국에 울려퍼진다'는 말이 전하는 방천마을에 산재해있는 20여개의 늪 그리고 마을 뒤편의 30헥타르 남짓한 면적의 호수가 힘찬 기운을 더해준다. 둥그렇게 빙빙 에돌아 올라간 계단을 타고 마을 북쪽 끝에 자리잡은 조망탑에 오르면 마을 민속가옥의 지붕선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온다.

마을 서쪽에 위치한 사구공원을 찾아도 좋고 1억년 태고의 신비를 고스란히 문혀온 두만강홍련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방천을 찾았다면 뭐니뭐니해도 삼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룡호각이다. 그곳에 오르면, 저 멀리 멀리로 질푸른 동해바다와 하늘이 이어지는 경이로운 광경과 마주할 수 있다.





산나물을 찾아서

고향의 사월은 살구꽃, 복숭아꽃으로부터 스타트를 떼기 시작하여 뭇꽃들이 어여쁨을 시샘하며 너도나도 활짝 피여나는 꽃피는 시절인가하면 때맞추어 민들래, 달래, 냉이 등 들나물들이 련이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우리네 식탁에 봄나물을 선물하는 들나물의 계절이라 해야겠다.

고향의 오월은 이름도 모를 꽃들이 거침없이 련이어 피고 지고 또 피고 피여 대지는 온통 꽃바다로 물결친다. 오월은 이렇게 생명의 활력소를 끊임없이 푸름으로 오색령롱한 빛으로 충전시키는가 하면 또한 해마다 빠질수 없는 오갈피, 두릅나물을 시작으로 참나물, 취나물, 쑥나물, 산더덕 등 여러 산나물들이 우리들의 입맛을 부쩍부쩍 끌어 당기는 산나물의 계절이라 해야 마땅하겠다.

산나물이 흙을 비집고 빠끔히 머리를 내미는 순간부터 약 한달간 오월단오 이전까지는 산나물 채집이 아주 적절한 시기이다. 청산은 날에 날마다 푸르러 가고 갖가지 산나물들이 기다렸다는듯이 너도나도 고개들고 기지개를 펴고 미소지으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와중에 금비가 한번씩 내리고나면 귀엽고 사랑스런 산나물들이 하루하루 몰라보게 우썩우썩 자라나 청산을 온통 산나물 축제의 분위기로 이끈다.

시골에서 태여나고 자라서 인지 아니면 어릴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산 나들이를 많이 해서인지 나는 산에 가기를 엄청 좋아하게 되였다. 그 옛날 고향집 앞 쌍둥이산에는 산나물이 무척 많았다. 산도라지, 산더덕, 땅에 붙은 모기버섯 , 소나무버섯 등 없는게 없었다. 옆마을 산에도 산나물이 풍성해 해마다 산나물철이 되면 동네 어머니들은 삼삼오오 떼를 지어 산나물 채집에 바쁘셨다.

어릴적 추억이 미련으로 남아서일가, 매년 산나물 계절이 오면 산에 가고픈 욕망에 마음이 들떠있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짜내서라도 나물채집을 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만 같았다. 그래야만 무슨 소원 같은 것을 이룬 것만 같았다. 헌데 산나물을 뜯으러 가려면 제철에 맞게 시간도 정해야하고 이동할 교통도구도 있어야 하고 함께 동행할 친구도 있어야 하며 산나물을 알아보고 산나물 채집에 흥취를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야 하니 한번씩 산에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였다. 어쩌다 못가는 해엔 아쉬움이 일년내내 속앓이로 남아 있었다.

다행이도 올해엔 운이 좋아 절친이랑 두번씩이나 산에 가게 되였다. 또한 지금 거주하는 곳이 산이랑 가까워서 20분 가량 운전하면 야산이 보이기 시작하여 좀 더 멀리 가면 뭇산들이 푸른 바다를 이룬듯 그야말로 가관이였다. 산에 오르고 산나물 채집하기엔 참 좋은 고장이라 해야겠다. 5월초는 산나물들이 방금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채집이 좀 어려웠다. 야산을 누비며 방금 눈을 떠 새상구경에 나선 연하디 연한 오갈피나물을 제법 많이도 채집했다.

산배추나물과 산옥수수나물도 뾰족뾰족 고개를 들고 나를 반겨주었다. 쉴새없이 나물뜯기에 흥이 났다. 산에서 먹는 새참은 참으로 꿀맛이였다. 마시는 물 한모금도 백산수처럼 시원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민들레밭을 만나서 큼직하면서도 여린 민들래도 가방이 불룩하도록 채집해 수확가득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다. 산나물 한상으로 오붓한 저녁상을 차려 가족들과 즐겼다. 찍어도 먹고 비벼도 먹으며 모두들 나물먹기에 여념이 없었다.

입안에서 퍼지는 향긋하고 싱그러운 나물향기가 폐부속 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일년에 누릴수 있는 아주 드문 즉석 나물밥상에 눈과 입이 호강했고 잠시나마 흐뭇한 행복감에 빠졌다. 헌데 한번으로는 뭔가 허전한 감이 들어 중순이 되여 또 한번 산에 가게 되였다. 이번엔 수확이 대단했다. 경이롭게도 산에 오른지 얼마 안되여 작은 두릅밭을 만나게 되여 오매불망 내손으로 산두릅을 꽤 많이 따게 되여 그 흥

분감을 도저히 말로는 형용할수가 없었다. 그리고 파아란 더덕싹, 아름답고 귀여운 네잎의 여린 더덕싹이 눈앞에 나타나던 그 순간의 짜릿함, 산나물중의 왕보물로 꼽히는 산더덕을, 한눈에 함께 나란히 서있는 두뿌리 산더덕을 만났던 그 순간은 그야말로 말그대로 황홀경이였다.

나는 더덕향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먹는것 보다 향을 음미하는 시각이 더 행복한 것 같다. 코끝으로 느끼는 더덕향은 마음속 힐링 자체였고 생더덕을 잘근잘근 씹을 때 입안에서 풍기는 그 향기는 행복자체였다. 더덕을 몹시도 사랑하는지라 더덕 잎, 웃부분 나긋한 더덕싹과 줄기까지 더운물에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즐겨먹는다.

산더덕은 뿌리, 줄기, 잎 어느 하나도 버릴게 없는 보물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인간이 사용하는 향수엔 왜서 더덕향 향수가 없는지 궁금했다. 만약 내가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꼭 자연산 더덕향 향수를 만들어 온 세상에 그 독특하고 풍치있는 향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다.

집에 돌아와 채집한 나물들은 무치고 전을 붙이고 해서 저녁 밥상을 보다 풍요롭게 장식했고 일부분은 랭장고에 넣어 얼궜고 또 일부분은 바짝 말리워서 천주머니에 넣어 저장했다. 부모님께도 드리고 겨울철 귀한 자식들이 돌아오면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소중히 모셔 놓았다.

산은 보물창고다. 산 속엔 온통 보물천지다. 부지런하기만 하다면 산 속에서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보물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산은 참 좋은 존재다.

산나물 하니 어린시절 엄마 따라 옆동네 산에 고비나물 뜯으러 갔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동네 엄마들이랑 신나게 산길을 걷다가 문뜩 신발아래 무언가 꿈틀 밟힌것 같아 내려다보니 아니 내가 뱀을 밟아버린게 아닐가. 아찔해서 기절초풍할 지경이였다. 너무 놀라서 마구 울며 뛰며 눈물범벅이 되였던 그날, 키 크고 야들야들한 고사리와 고비를 한마대씩이나 채집해서 엄마는 나물을 머리에 이고 나는 등에 업고 서로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던 기억, 수확의 기쁨 듬뿍 안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성취감에 한껏 부풀어 올라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더 없이 가벼웠던 기억이다. 그 많은 산나물을 밤을 새면 나물이 질겨진다며 밤을 지새우며 큰 가마솥 두개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로 몽땅 데쳐서 정성들여 널어 놓고서야 안심하고 잠자리에 누웠던 기억이다. 영화 속 한장면 같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몇십년이 지난 오늘에도 새록새록 어제일처럼 떠오른다.

산나물 채집은 과정이 항상 즐겁긴 하지만 산나물을 통해 산의 정기와 산의 령혼을 감내하는 그 느낌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삶의 지혜와 인생철리를 불어 넣어주는 것 같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다. 또한 친구들이랑 데이트도 하고 살아온 인생이야기도 하면서 즐기는 그 순간들도 너무 소중하다. 올해도 산을 오르면서 귀중한 건강식품을 든든히 준비해 놓았으니 올 겨울도 맛나는 산나물을 맘껏 먹으며 마음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게 상큼해진다. / 길림신문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맹영림 중국담당국장 담화

최근 미국이 대만에 대한 3억 4,500만US$분의 《무기원조일괄안》이라는것을 발표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적긴장상태를 또다른 전쟁발화점에로 몰아가고있다.

이로써 현 미행정부는 집권한지 3년도 안되는 사이에 전임행정부시기와 맞먹는 회수의 군사원조를 대만에 제공하였다.

미국은 앞으로 5년동안 대만에 100억US$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들이미는것과 함께 해마다 10억US$에 해당한 긴급방위지원도 제공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는 철저히 중국정부와 인민앞에 미국이 공약한 하나의 중국원칙과 3개 중미공동콤뮤니케정신에 대한 란폭한 위반인 동시에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다.

앞에서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중국의 엄연한 한 부분인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는 미국의 철면피한 이중성,량면성이야말로 지역정세의 안정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정치군사적도발이며 마땅히 세인의 규탄을 받아야 할 반평화적망동이다.

중국정부와 군대가 대만섬에 대한 미국의 무기제공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표명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대만을 《화약통》,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해협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고 신랄히 비난한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중국의 핵심리익중의 핵심리익인 대만문제를 가지고 물고늘어지는 현 미행정부의 속심은 명백하다.

대만을 불침의 반중국전초기지,대중국억제전략실현의 제1선참호로 전락시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적지위를 확보하자는것이 다름아닌 미국의 흉책이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적야심은 강대한 중국인민의 힘앞에서 절대로 통할수 없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이 《대만독립》세력에게 가져다준것이란 대만섬을 미국의 거대한 도태무기전시장,파철무지로 만들어놓은것뿐이다.

미국이 대만문제에서 중국이 설정한 붉은선을 거듭 침범하면서 중국의 핵심리익을 한사코 건드리는 위험한짓을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만회할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의 군사적활무대가 아니며 전쟁시험터도 아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자기의 주권과 핵심리익을 철저히 수호할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대만독립》세력을 부추기는 미국의 책동을 중국의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과 엄중한 주권침해로 락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지지성원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8월 3일 평 양(끝)

朝鲜解放战争胜利70周年，邓其平代表志愿军烈士后代给朝鲜劳动党总书记，金正恩委员长的电报

原创 邓其平 跨过鸭绿江 发表于山东



朝鲜劳动党总书记，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长，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武装力量最高司令官：

您好！

值此朝鲜解放战争胜利70周年，抗美援朝战争胜利70周年即将到来之际，我代表全体中国人民志愿军烈士后代，向敬爱的总书记和英雄的朝鲜人民表示热烈的祝贺！

70年前，我们的父辈响应中国共产党党中央和中国人民的伟大领袖毛泽东主席“抗美援朝，保家卫国”的伟大号召，雄纠纠气昂昂跨过鸭绿江，和英雄的朝鲜人民并肩作战。在毛泽东主席、金日成主席的英明领导下，经过浴血奋战，终于将以美帝国主义为首的“联合国军”打到了谈判桌上，签下停战协议，我们最终取得了胜利。

中朝两国人民的友谊是用鲜血凝成的，全中国人民永远不会忘记，在中国革命的各个历史时期，都有朝鲜同志参加和支援中国人民的革命斗争，特别是在抗日战争中，以金日成主席为代表的朝鲜抗日队伍和中国人民并肩战斗，取得了抗日战争的最后胜利。

中朝两国人民的友谊是老一代无产阶级革命家毛泽东主席、周恩来总理、金日成主席亲手缔造培育的。经过中国几代领导人和伟大的金正日将军，英明的金正恩委员长共同努力下，中朝两国人民的友谊日益增进。特别是近10年以来，在习近平主席和金正恩委员会长共同促进发展下，中朝两国人民的友谊创造了新的辉煌。

在金正恩委员长和朝鲜劳动党英明领导下，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建设日新月异，人民生活越来越幸福。新冠疫情发生之前，我们曾多次去朝鲜，见证了朝鲜发生的巨大变化。在战胜新冠疫情方面，朝鲜也创造了罕世的奇迹。

我们中国人民志愿军烈士后代，一定要继承、保持和发扬父辈的革命精神，要象爱护眼睛一样保护好中朝两国人民的伟大友谊，我们永远要做中朝两国人民谊的友好使者。

衷心祝愿委员长身体健康！朝鲜国泰民安，繁荣昌盛，人民生活幸福！

中国人民志愿军烈士之子：邓其平

2023年 7月 9日

중국 성인 절반 이상 과체중

"2030년에는 의료비 22% 비만에 쓴다"

중국 성인의 50% 이상이 과체중에 속해 보건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북경우의병원 부원장 장충도(张忠涛)는 7월 29일 북경에서 열린 제2회 중국비만대회(COC2023)에서 "중국의 비만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부원장은 "세계적으로 비만증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질병이 되였다." 면서 "2030년이 되면 중국의 과체중 관련 보건 지출이 전국 의료 비용 총액의 22%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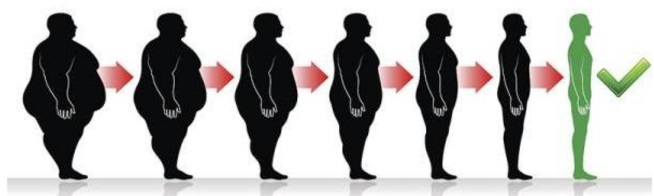
그는 "중국의 체중·신진대사외과 환자수가 처음으로 1만명에 도달하는 데는 3년(2018-2021년)이 걸렸는데 그 수자는 1년(2021-2022년)만에 2만명이 됐다." 면서 의료 력량이 환자의 수를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부원장은 정부와 보건부문, 전공 의료진, 비만 환자가 함께 과체중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익 기금회와 협력해 경제력이 부족하지만 의학적으로 체중을 줄일 필요가 있는 환자에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북경협화병원 체중·신진대사외과 주임 장붕(张鹏)은 중국의 비만 인구 분포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북부 지역에 비만 인구가 비교적 많고 살림살이가 더 나은 남쪽으로 갈수록 체중이 작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장주임은 "서방 국가에선 체중감량 수술의 건수와 비만 인구의 수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면서 "내륙 지역과 경제적으로 락후한 지역의 체중감량 수술 건수는 경제가 발달한 해안 지역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21일 정기기자회견에서 핵오염수해양방류계획을 강행추진하려는 일본당국의 처사를 비난하였다.

최근 일본수상 기시다가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를 돌아보면서 《핵처리수》방류가 절대로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떠든데 이어 일본당국은 내각회의를 열고 방류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날자를 확정짓기로 하였다.

중국 일본의 핵오염수해양방류계획 강행추진책동 비난

이와 관련하여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당국이 핵오염수해양방류계획을 강행추진하려는데 대해 엄정한 립장을 밝혔다고 말하였다.

그는 일본당국이 국내외의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세계해양환경과 인류건강에 끼칠 위험을 홀시하며 핵오염수해양방류계획을 한사코 추진하려는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라고 언명하였다.

중국은 이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앞으로 사태발전을 면밀히 주시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중국신문넷

更好满足人民群众对高品质生活的需要—五部门解读《关于恢复和扩大消费的措施》

新华社记者周圆、陈炜伟

近日，《关于恢复和扩大消费的措施》经国务院同意，由国务院办公厅转发各地方、各部门，并向社会公开发布。在31日举行的国务院政策例行吹风会上，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商务部、文化和旅游部、市场监管总局有关负责人就措施的相关情况进行了介绍。

上半年，我国消费恢复较快，社会消费品零售总额同比增长8.2%，比一季度加快2.4个百分点。

“我们也注意到，一些消费品类增长势头仍不稳固，一些居民的消费信心不强、顾虑不少，一些领域消费体验不佳、感受不好，需要政策进一步加力。”国家发展改革委副主任李春临介绍，措施围绕稳定大宗消费、扩大服务消费、促进农村消费、拓展新型消费、完善消费设施、优化消费环境等六个方面，提出20条具体政策举措，将与各领域、各品类重点政策一道形成促进消费的一揽子政策体系。

就业和收入都是影响消费的重要因素。李春临说，接下来将落实就业优先政策，加强困难群体就业兜底帮扶，鼓励勤劳致富，完善按要素分配的政策制度，推动居民收入增长与经济增长基本同步，通过消费能力提升，提高居民消费意愿。

智能家电是当前的消费热点。措施提出，推广智能家电、集成家电、功能化家具等产品。

工业和信息化部消费品工业司司长何亚琼说，工业和信息化部正组织跨领域融合标准研制，推动产品数据跨品牌、跨企业、跨终端的互联互通。打通不同品牌、系统、平台之间的界限，实现产品之间的互联互通和信息交换，让消费者获得更加便捷的智能家电使用体验。

大宗消费和服务消费方面，上半年，汽车在消费中占比约一成，餐饮收入增长高达21.4%。

商务部市场运行和消费促进司司长徐兴锋表示，商务部将会同相关部门组织开展“百城联动”汽车节、“千县万镇”新能源汽车消费季等活动；联通部门数据、打破信息孤岛，解决二手车车况信息不

透明问题。此外，持续开展好餐饮促消费活动，指导各地打造餐饮消费品牌。

上半年，居民旅游需求得到集中释放、旅游出行大幅增加。国内旅游总人次达23.84亿，实现国内旅游收入2.3万亿元，分别同比增长63.9%、95.9%。

在丰富文旅消费方面，文化和旅游部产业发展司司长缪沐阳表示，下一步，将研究制定进一步激发旅游消费潜力、推动旅游业高质量发展的若干措施，制定国内旅游品质提升行动计划。此外，启动新一批国家文化和旅游消费示范城市、国家级旅游度假区、5A级景区、夜间文化和旅游消费集聚区、旅游休闲街区的建设工作。

改善消费环境是恢复扩大消费的重要支撑。市场监管总局执法稽查局局长况旭介绍，将会同相关部门出台改善消费环境的意见，启动全国放心消费示范城市创建，发挥城市整体创建的牵引撬动作用，带动各地消费环境进一步提质升级。

办好社区里的“幸福餐桌”（民生观）

来源：人民日报



社区是提供基本公共服务的关键载体，随着供给日益丰富、功能不断完善，社区食堂也在不断扩大自己的服务半径，让更多群众受益

近年来，社区食堂在全国遍地开花、加速发展。因为方便、便宜，老年人就餐有补助，尤为社区老人青睐。有的社区食堂还成了快递员、送餐员等户外劳动者休息和就餐的好去处。

为完善老年助餐服务，推进社区食堂建设，中央和各地都出台了相应政策。去年10月，住房城乡建设部、民政部联合发布《关于开展完整社区建设试点工作的通知》，提出，试点社区应规划配建食堂等便民商业服务设施。今年7月，商务部等13部门制定的《全面推进城市一刻钟便民生活圈建设三年行动计划（2023—2025）》中提到，“探索发展社区食堂，建立老年人助餐服务网络”。各地民政部门也根据实际情况，对食堂建设、老年人用餐等给予不同程度的补助。

小食堂牵动大民生，想要让社区食堂拥有更广阔的发展空间、受到更多居民的欢迎，还需要在品质和创新上继续下功夫。

保证质量、丰富供给，让居民吃得更安心舒心.

价格实惠、菜品家常是社区食堂的主要特点之一。如今，除了保证食品安全这一硬性要求外，一些地方在其他方面也进行了诸多探索，让餐饮服务更完善：有的社区推出个性化订餐，组织上门送餐或启用流动餐车，吃饭更方便；有的社区推出小份菜、半份菜或无糖餐等模式，选择更多样；有的社区食堂安装带有显示屏的备餐台，上面显示着菜品的蛋白质、脂肪等成分配比，设备更智能……不断完善的软硬件服务，让更多居民享受到“舌尖上的幸福”。

创新运营、问需于民，不断提高食堂在居民中的认知度和好感度。据报道，在杭州市上城区复兴里街道的一家社区食堂，就成为颇受居民喜爱的“网红店”，这里装修风格很文艺，清晨，晨练完的阿姨、大叔可以来餐厅露台聊天休息；午后，这里又会成为许多年轻人的办公场地。有的社区利用食堂空间，在非高峰就餐时间开展厨艺教学、西点烘焙等特色课程，丰富居民的日常生活。充分利用场地资源、开发出更多业态，社区食堂也可以成为社区活动的另一个温馨场所。

社区是提供基本公共服务的关键载体，社区食堂给社区增添了“幸福餐桌”。随着供给日益丰富、功能不断完善，社区食堂也在不断扩大自己的服务半径，让更多群众受益。在社区生活中，不仅是食堂，更多地方都可以通过精细化、多元化的服务，

挖掘出更多发展潜力，推动居民共治共建，让社区真正成为居民宜居宜业的家园。 徐阳



以细致功夫促进出行适老化（民生观）

来源：人民日报

以地面公交为抓手，不断优化便利老年人出行的公共服务

“以前台阶多，最怕上下车。现在一抬脚，就能轻松上车。”在河北石家庄一趟适老示范线路公交车上，提到低地板低入口的纯电动车辆，乘坐的老人立马打开话匣子，言语间透着获得感。

在交通运输日益发达的今天，尽管地铁出行速度快、打车出门高效率，但每日穿梭在城市路网的地面公交，依然是老年人主要的出行工具。相关调查报告显示，75%的老年人日常出行距离在5公里以内，21%的老年人日常出门活动范围不超过1公里。相对简单的出行需求，让便捷实惠的地面公交成为老年人的“心头好”，故而公交也成为适老化改造的重点之一。

近年来，各地以地面公交为抓手，通过推行适老示范线路，不断优化便利老年人出行的公共服务。不仅在河北，自2021年以来，越来越多城市以“绣花”功夫，对城市公交进行适老化改造。

“绣花”功夫在于“尽精微”。从具体难题入手，在细节处发力，才能改得其所。在硬件上，要盯住老年人的实际需求，加以改造和调整。比如，沿途公交站牌改用“大字版”，配合发车语音提示等。在软件上，要改进服务，要求乘务人员“多看一眼、多等一会儿、多搭把手”。从细微处着眼，一车一站中透出的巧思，正是为提升老年人出行获得感作出的尝试与努力。

“绣花”功夫也在于“致广大”。别看适老化改造多是“微建设”，却是一项需要着眼整体的系统性工程。大型、超大型城市往往路网复杂，循序渐进提升公交适老化改造水平，绝非轻而易举，需要有关方面在充分调研的基础上作出统筹协调、科学谋划。通过综合分析公交线路及客流数据，优先选取能够串联起菜市场、公园、医院等老年人高频活动场所的线路进行有序改造，更好满足老年人出行需求，让适老化工作更可持续。

出行适老化改造既是应对人口老龄化的必然之举，也是让更多老年人共享交通运输改革发展成果的应有之义。各方在资金、用地、设施和服务上接续发力，不断提升适老化出行服务的广度、精度与温度，必定能增进更多老年人的获得感、幸福感和安全感。

韩鑫





助力暑期夜经济发展 多城限时免费乘地铁

来源：北京青年报

近日，全国多个城市地铁推出“限时免费乘坐”的活动，主要集中在夜间，以激发城市经济活力。昨日，北京青年报记者查询相关部门发布的数据了解到，多个城市推出地铁限免时段后客流量有所提升。

8月18日，微信公众号“福州地铁”发布消息称，2023年8月28日至2023年12月31日期间，福州地铁开展领电子消费券享夜间、周末及节假日免费乘地铁活动；市民还可以领取电子地铁公交年卡消费券，享受购买地铁公交年卡的优惠。

4月25日，微信公众号“南通轨道交通”发布消息，江苏南通轨道交通推出“夏夜出行·地铁免费乘”活动，今年4月28日至8月31日每日20时后至运营结束，乘客享受免费乘坐地铁，不限里程、不限次数。南通轨道交通称，此举是为积极响应市委、市政府关于促进服务业繁荣发展的号召，激发通城“夜经济”消费活力。

统计数据显示，截至5月3日，南通市南大街商圈友谊桥站晚8时后免费乘坐的乘客人数，已超过该站全天总客流量六成，“夜购”“夜娱”“夜食”等消费越来越火。

北青报记者注意到，6月29日，公众号“南昌地铁”也发布公告称，为进一步推广地铁“鹭鹭行”App，提供普惠便捷出行服务，助力暑期夜经济发展，南昌地铁2023年暑期(7月1日至8月31日)，每日21时(含)后至运营结束，通过“鹭鹭行”乘车码进站的乘客免费乘地铁。江西媒体后续报道称，市民夜间出行热情高涨，7月1日至7月31日，21时后南昌地铁全线网客流总数为278.91万人次，日均客流9万人次，环比增长26.76%。

河南洛阳地铁6月27日发布公告：今年7月1日至8月31日每日19时(含19时)后至运营结束期间，使用洛易行App或微信小程序(城市通)扫码进站的乘客，可免费乘地铁，且不限乘车次数。

据洛阳市轨道交通集团介绍，7月1日19时至营业结束，洛阳地铁1号线进站客流量为3.25万人次，环比上周六增加74.34%，占全日进站客流量的36.47%；洛阳地铁2号线进站客流量为1.68万人次，环比上周六增加44.81%，占全日进站客流量的29.61%。

지울수 없는 반인륜적전쟁범죄의 증거물
일본언론 태평양전쟁시기의 독가스탄제조공장 폭로

최근 일본의 NHK방송이 태평양전쟁시기 극비밀리에 운영되여오던 독가스탄제조공장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방송은 오래동안 숨겨져있은 후꾸오까현 기따규슈시에 있는 이 공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따규슈시에 있는 일본륙상《자위대》 고꾸라주둔지의 훈련장에 1937년에 건설된 독가스탄제조공장(도꾜제2륙군무기공장소속 소네제조소)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약 5만평의 부지에 7동의 건물과 원통형의 가스배기탑까지 있는 이 공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피부미란성독해물인 이페리트나 질식성독해물인 포스겐 등의 독가스를 포탄에 채워넣는 작업이 진행되였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8년동안에 제조된 독가스탄의 수는 약 150만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제조된 독가스탄이 아시아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사용되였다.

통풍 및 환기를 보장하기 위해 창문을 크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는 종종 가스루출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자들이 끊기지 않았다는 증언자료가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완성된 포탄을 보관하군 하던 건물앞에 흙으로 쌓아올린 구조물도 남아있는데 전문가들은 포탄이 만일 폭발하는 경우 그 폭풍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장에서는 당시 현지사람들을 중심으로 1 000여명이 일하고있었다.

항상 화학물질냄새가 꽉 차있었으며 작업성원들은 고무로 만든 방독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있었지만 그래도 화학물질이 새여들어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작업성원들중 대부분이 이미 사망하였으나 1991년에 방영된 NHK방송편집물에는 당시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되여있다.

그들은 독가스로 인한 후유증이 가셔지지 않았기때문에 전후에 만성적인 기관지염에 시달렸다, 기침이 나고 목구멍이 아프고 눈이 벌겋게 충혈될 정도로 직접 고통을 느껴보았다, 당국이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독가스탄을 제조하였기때문에 철저하게 증거를 숨겨왔다고 증언하였다.

전문가들이 이곳을 국내에서 찾아볼수 없는 매우 중요한 침략전쟁의 증거물로 보고있으나 일본륙상《자위대》는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구실을 내걸고 이 건물을 없애버리려고 하고있다.

시민단체들과 학계, 언론계는 침략전쟁이 어떤것이였는가를 직접 생각해보게 하는 재료가 필요하다, 당국이 불미스러운 력사를 진지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 전쟁에 대한 기억을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현 일본당국이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기 위해 발악하며 죄악에 찬 전쟁범죄의 흔적을 없애버리려하고있지만 아시아나라들과 전세계에 남긴 뼈아픈 상처는 절대로 지울수도 묻어버릴수도 없다. (끝)



우주의 나이는 얼마일가? 최신 추산결과 267억살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주학모델은 우주가 약 138억년전의 대폭발로 형성되였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카나다 과학자들이 전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의 약 2배인 267억살일 수 있다. 이 연구결론은 주류 우주학모델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불가능한 초기 은하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공했다. 관련 론문은 최신 《왕립천문학회 월간지》에 발표되였다.

오래동안 과학자들은 우주대폭발 이래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고 먼 은하에서 온 빛의 적색편이를 기반으로 하여 가장 오래된 항성을 연구했으며 우주의 마이크로파 배경복사 및 우주팽창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통해 우주의 나이를 138.97억살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완벽하지 않고 해석하기 힘든 일부 모순과 역설이 존재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른바 '불가능한 초기 은하문제'인데 바로 우주가 형성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매우 크고 매우 밝으며 매우 성숙된 은하들이 나타난 것이다. 례를 들면 제임스 웹우주망원경이 고도로 진화된 초기은하를 발견한 것이다. 이런 은하들은 대폭발후 약 3억년만에 존재했는데 그 성숙도와 품질이 우주가 수십억년 동안 진화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마투살라별'과 같은 항성은 우주보다 더욱 오래된 것으로 보였다.

연구원들은 폴 디랙이 가정한 '결합상수'의 개념을 도입했다. 결합상수는 립자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하는 기본 물리상수인데 디랙은 이런한 상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만약 이런 상수의 변화발생이 허용된다면 웹망원경이 적색편이하에서 관찰한 초기 은하형성의 시간구도는 수억년에서 수십억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데 이는 더 높은 발달수준에 대한 보다 실행가능한 설명을 제공했다.

지구생태계를 엄중히 위협하는 기온상승문제

(평양 8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세계각지에서 련속 최고의 고온기록을 깨뜨리며 극심해지고있는 기온상승현상은 지구의 생태계에도 엄중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지난 4일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여름이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큰 피해를 준 《극심한 여름》이라고 묘사하면서 이러한 날씨는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있다고 밝혔다.

이 기구가 발표한 최신자료들에 의하면 프랑스, 그리스, 이딸리아, 에스빠냐, 알제리, 뛰니지 등 많은 나라들에서 가장 높은 낮기온과 밤기온이 기록되였다고 한다.

또한 7월에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기록적으로 높은 기온이 관측된데 이어 8월초 남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 겨울철열파가 휩쓸었다.

지중해에서는 바다수면온도가 특별히 높아져 일부 수역에서 30℃를 넘어섰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도 《바다에 열이 나고있다.》, 《바다관련문제는 다른 모든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바다물면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산호들의 대규모적인 백화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이미전부터 유엔환경계획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물온도의 상승과 그로 인한 산호들의 백화현상에 의해 21세기중에 바다에서 모든 산호초가 소실될수도 있다고 경고하여왔다.

바다뿐 아니라 륙지에서도 생태계의 파괴현상은 더욱 심화되고있다.

에스빠냐신문 《엘 빠이스》가 전한데 의하면 이 나라의 남부도시 말라가의 주변에는 면적이 1 400㏊에 달하는 짠물호수가 있는데 해마다 수많은 붉은학이 날아들어 이곳은 유명한 관광지로

되여왔다.

지난해에 1만 7 000여마리의 붉은학이 이곳에 날아왔으나 올해에는 가물로 하여 호수가 《소금사막》으로 변하자 수십마리밖에 찾아들지 않았다고 한다.

붉은학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던 관광객들도 대폭 줄어들게 되였다.

이 호수가 말라버릴 지경에 이른것은 21세기에 들어와 이번이 처음이며 가물현상은 주변지역의 농작물재배에도 피해를 주고있다.

8월초에는 미국 얼래쓰커지역의 빙하호수에서 얼음뚝이 붕괴되면서 큰물이 발생하였다.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로 고산지대 빙하가 빠르게 녹고있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1 500만명이 빙하붕괴에 의한 큰물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아마조나스강류역을 비롯한 각지에서 열대우림과 망그로브림들이 파괴되고 사막화현상과 들불 등으로 산림과 초원이 황폐화되고있다.

점점 더 급속히 파괴되여가는 생태계의 심각한 상황은 지구온난화와 엘니뇨현상에 근본요인이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억제하지 못하면 폭염,큰물,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위기의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높아져 지구의 생태환경이 보다 위험해질것이라는것이 학계의 일치한 견해이다.

국제사회에서는 《2024년에 지구가 보다 더워질수 있다.》,《열파는 보다 자주 나타나고 그 세기도 더 강해질것이다.》,《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와 불안이 날로 커가고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절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끝)

로씨야, 38개 비우호국 상대로 조세조약 일부 중단

푸틴 로씨야 대통령이 8일 미국을 포함한 38개 비우호 국가를 상대로 조세조약 협정의 일부 조항을 잠시 중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대통령령은 조세조약중 동산과 부동산, 주식배당금, 리자, 서비스 및 저작권, 근로소득, 취업소득세, 자본과세 등과 관련해 기본 규정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외 세수특혜조항과 세수협정 체결국의 납세인에게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안기지 않을 것이라는 비차별적인 규정도 중단했다.

하지만 이중과세를 방지할 데 관한 법규는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며 38개 비우호 국가에서 등록한 회사들은 로씨야에서 여전히 해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푸틴 로씨야 대통령은 이런 비우호 국가들에 조세조약 협정 조항 집행을 잠시 중단키로 한 통지를 보낼 것을 로씨야 외교부에 지시했다. 그리고 국가 두마에 조항 정지 관련 의안을 교부할 것도 정부에 지시했다.

앞서 라브로프 로씨야 외교장관은 로씨야는 비우호 국가들과 종전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만일 이런 나라들이 반 로씨야 로선을 포기한다면 로씨야는 자신의 리익에 따라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국제방송



조선봉건왕조

조선봉건왕조는 고려왕조를 무장정변의 방법으로 뒤집어엎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야심을 품고있던 리성계는 나라의 거의 모든 군사력이 료동원정에 동원된 기회에 무장정변을 일으킬것을 획책하면서 료동원정을 반대해나섰다.

리성계는 진군을 다그치라는 정부의 지시를 거역하고 장마를 핑게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마침내 5월말에 위화도에서 매국적인 반란을 일으키고 원정군을 되돌려세웠다. 이것을 력사에서 《위화도회군》이라고 한다.

위화도에서 돌아선 리성계는 반란군을 내몰아 6월초에 개경(개성)을 점령하고 가장 두려워하던 정치적적수인 최영을 귀양보낸 다음 우왕을 내쫓고 9살나는 그의 아들 창을 왕자리에 앉히였다.

다음해인 1389년에는 다시 창왕을 추방하고 고려왕실의 먼 친척인 요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올려놓았다. 이것이 고려의 마지막왕인 공양왕이였다. 그리고 우왕과 창왕을 고려 왕실의 후예가 아니라 신돈의 아들, 손자라고 하면서 얼마후에는 류배지에서 죽여버렸다.

이와 함께 리성계는 중소지주계층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신진관료들인 정도전, 조준, 남은 등 일파와 결탁하여 대토지소유자들인 대관료층을 비롯한 반대파들을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정계에서 몰아내거나 살해하였다.

리성계일파는 반대파관료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한편 왕권탈취를 위한 경제적지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정리와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리성계일파는 또한 왕권탈취를 위한 야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발판으로 될수 있는 권력기구도 동시에 준비하여나갔다. 1392년 4월 리성계는 자기 아들 방원을 시켜 왕권탈취음모에 가담할것을 끝까지 거부한 대학자이며 최고위관료였던 수문하시중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함으로써 반대파세력의 마지막 인물을 제거해버리였다.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리성계는 1392년 7월 12일 드디여 공민왕비 안씨를 강박하여 고려왕조의 마지막왕인 공양왕을 내쫓고 다음날 자기가 《권서고려국사》(략하여 《권지국사》, 림시로 국왕을 대리한다는 뜻)로 되였으며 4일후인 17일에는 도평의사사에 들여앉힌 《혁신파》관리들의 《추대》를 받는 형식으로 왕자리를 탈취하고말았다. 이리하여 474년간 존속한 고려왕조는 끝장나고 조선봉건왕조가 성립되였다. 이때부터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리성계일파는 왕조교체이후에도 계속 반대파세력들을 탄압하는 한편 자기들의 출로를 큰 나라를 등에 업는데서 찾았다. 마침내 리성계는 사대를 국가의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존하여 자기 정권의 대외적안정은 물론 대내적안정도 보장하는 사대굴종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개경사람들은 리성계의 배신적인 정권탈취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벌리였다.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잡은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정치적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봉건통치체제를 재편성하고 강화해나갔다. 15세기 봉건국가는 중앙집권적인 봉건관료통치기구인 토지제도, 군대제도, 신분제도, 법률제도, 경찰제도, 수탈제도 등을 정비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계속되여 1467년 함길도농민전쟁이 일어났고 그후 전라도, 황해도지역에서도 큰 규모의 농민폭동이 일어났다.

16세기에 이르러 봉건통치배들사이의 추악한 권력다툼으로 말미암아 봉건통치는 더욱 문란해졌고 전시기에 강대했던 나라의 군사력은 거의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여 봉건국가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은 임진조국전쟁(1592-1598년)에서 용감히 싸워 일본침략자들을 격퇴하였고 17세기에는 두차례나 걸친 외세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웠다.

17세기이후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 통치배들의 탐욕의 증대와 봉건통치질서의 문란 등으로 봉건적억압착취는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였으며 이를 반대하여 평안도농민전쟁(1811-1812년), 진주농민폭동(1862년) 등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일어나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봉건통치의 위기는 세도정치와 카톨릭교의 침투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격화되였으며 2 000여년동안 계속된 조선의 봉건제도는 붕괴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자본주의적관계가 봉건제도를 무너뜨릴 새로운 힘으로 자라났으며 전국을 휩쓴 농민봉기는 봉건국가의 밑뿌리를 뒤흔들어놓았다.

이러한 시기에 자본주의침략자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에 쳐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애국적인민들은 1866년에 미국침략선 《셔먼》호와 프랑스침략함대를 격퇴하였고 1868년에는 미국침략선 《쉐난도아》호와 《챠이나》호를 격퇴하였으며 1871년에는 미국함대의 침입을 분쇄하였다.

조선인민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은 일본침략자들이 1875년 《운양》호사건을 도발한 다음 1876년 굴욕적인《강화도조약》이 강압체결되고 나라가 점차 반식민지로 굴러떨어지기 시작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1882년에 대규모적인 군인폭동(임오군인폭동)이 일어났고 1884년에는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한 부르죠아개혁(갑신정변)이 일어났으며 1894년에는 대규모농민전쟁(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이 농민전쟁의 압력에 의하여 봉건정부는 1894년에 부르죠아개혁(갑오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일본침략자들의 방해책동으로 실패하였다.

일제는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07년에는 《정미7조약》을 날조하고 조선봉건군대해산을 강요하였다. 조선인민은 반일의병운동, 국채보상운동, 애국문화운동 등 각종형태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을 세차게 벌리였으나 나라와 민족을 일제의 마수로부터 건져내지는 못하였다.

1910년 8월 일제침략자들에 의한 《한일합병조약》의 날조로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사례절은 집단의 화목과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웃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아무리 바빠도 아래사람의 인사에 성의껏 답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고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인사를 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순간이지만 그것을 통해 인격을 가늠해보게 된다.이렇게 놓고볼 때 인사례절은 사람의 인격을 비쳐주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앞목이 짧고 뒤목이 길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군중을 대할 때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고 그들이 하는 인사를 례절있게 받을줄 아는 일군을 두고 사람들은 인격자라고 말한다.

일군들은 현지지도의 길에서 평범한 로동자들에게 허리굽혀 인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인적풍모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을 낮추고 언제나 겸손하게 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고상하고 우수한 인사례절

인사례절을 지키는데서 우리 민족의 고상하고 우수한 례법을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사법이다.세계에는 웃사람과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잡았다놓는 악수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이고 문화적일뿐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없다.조선절에는 앉은절과 선절이 있으며 그것은 또한 큰절, 반절, 평절로 갈라볼수 있다.이것은 대상과 장소에 따라 절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것을 말해준다.실례로 길가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는 서로 머리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나누지만 로인이나 웃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존경의 뜻을 담아 공손한 말로 안부를 물으면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인사말에서도 웃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동년배에게 하는 말이 달랐으며 아래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달랐다.특히 자기 소개와 초면인사를 할 때, 병문안이나 불상사가 난 집을 찾아갈 때 말과 행동을 례의에 맞게 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사례절을 비롯한 례의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 인격을 부단히 높여나감으로써 사회주의문명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색동옷을 곱게 차려입은 귀여운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세배인사를 하고있다.

EG.5변이주 우세적 류행 형성! 최신 판단→



국가질병예방통제국 위챗 공식 계정에서 19일 발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EG.5 변이주와 관련한 과학보급문답>에 따르면 우리 나라 모니터링결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류행주 가운데서 EG.5변이주 점유비률이 4월의 0.6%에서 8월의 71.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 성급 행정구역에서 우세적 류행을 형성했으며 앞으로도 당분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EG.5 변이주란 무엇인가?

EG.5 변이주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XBB.1.9.2의 하나의 아형분지로 가장 일찍 2023년 2월 17일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였다. 7월 1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모니터링중인 변이주'(variantundermonitoring，VUM)로 지정했고 8월 9일에는 '주목해야 할 변이주'(variantofinterest, VOI)로 조정하여 EG.5 변이주에 대한 특징과 공중보건위생 위험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를 강화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EG를 제외하고 VOI로 분류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변이주는 총 3가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EG.5변이주외에 XBB.1.5 변이주와 XBB.1.16 변이주가 있는데 이 세가지 변이주는 모두 XBB 변이주 계렬에 속한다.

EG.5 변이주, 우리 나라에서의 류행상황은 어떤가?

우리 나라 모니터링결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류행변이주중 EG.5 변이주의 비률은 4월의 0.6%에서 8월의 71.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성급 행정구역에서 우세적 류행병을 형성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오미크론 XBB 계렬 변이주의 류행을 겪었는데 확립된 군체면역력은 오미크론 XBB의 아형분지에 속하는 EG.5에 대하여 여전히 면역보호효과가 있다. 최근 전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파상적 류행추세인바 전염병은 각 지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적고 단기간에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대중들은 어떻게 개인방호를 잘해야 할가?

기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변이주감염을 예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들은 계속하여 좋은 개인위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작업과 휴식을 하며 집안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과학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보장하며 신체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중, 특히 고령자, 중증 기저질환 환자 등 중고위험군체가 개인보호를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을 리용하거나 사람이 밀집된 실내 공공장소를 방문할 때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흰죽, 우유가 위장을 보호한다? 더 이상 믿지 말 것!

위는 ‘수곡지해(水谷之海)’라고 불리는데 이는 음식의 림시 저장장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소화기관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위장을 보호하려고 시도하는데 그중 몇가지 그릇된 방법은 위를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소문: 죽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기에 위를 보호할 수 있다.

분석: 그렇지 않다. 죽을 장기간 마시면 소화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 위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쌀과 같은 전분식품이 조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젤라틴화 효과’는 소화 및 흡수를 용이하게 하여 유아, 고령자 및 기타 소화기능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너무 부드러운 음식을 장기간 먹으면 위가 더 ‘게을러’지고 심지어 소화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위산 과다 분비, 위식도 역류, 궤양 및 위천공이 있는 사람은 죽을 섭취하면 위산분비를 악화시키고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젤라틴화 효과’의 영향으로 죽의 혈당지수가 더 높아 혈당통제가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죽의 영양은 주로 탄수화물인바 장기간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가 결핍되여 건강에 해롭다.

소문: 우유를 마시면 위점막을 보호할 수 있다.

분석: 그렇지 않다. 우유를 마시면 위에 지속적인 보호막을 형성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우유의 단백질이 위벽에 퍼져 보호막을 형성하여 위에서 신물이 나고 위가 팽창되는 것을 완화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유의 단백질은 위산의 작용으로 빠르게 무수한 작은 립자로 응축되기에 위 표면을 완전히 덮을 수 없으며 이른바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없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사람의 경우 우유의 희석효과는 일시적인일뿐 그 효과는 다른 식품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위산분비를 더욱 자극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그늘진 곳에서 말린 옷, 왜 악취가 날가?



태풍 ‘독수리’의 영향을 받아 북경, 천진, 하북 등 지역에 지난 주 폭우 또는 대폭우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는 특대폭우가 내렸다. 련일 비가 내리고 공기가 습해 젖은 빨래가 그늘진 곳에서 마를 수 밖에 없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늘진 곳에서 말린 옷에서 악취가 난다고 불평을 부리기도 했다. 그럼 왜 그늘진 곳에서 말린 옷에서 악취가 나는 것일가? 어떻게 옷의 냄새를 없앨가? 기자는 이

와 관련해 관련 전문가를 취재했다.

"여름철 날씨가 변덕스럽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옷을 씻은 후 그늘진 곳에서 천천히 말릴 수밖에 없다. 그늘진 곳에서 말린 옷에서는 자주 악취가 생기는데 이는 미생물의 번식과 관련된다." 중남민족대학 화학재료과학학원 화공학부 부주임, 부교수 한효락은 이같이 밝혔다.

세탁을 거친 옷에는 20%의 오물이 남아있는데 그중에는 세균과 피지가 포함된다. 공가가 건조하고 해빛이 충족하면 옷이 신속하게 말라 세균이 갑절 번식하지 못한다.

한효락은 "하지만 덥고 축축한 날이면 오물이 남아있는 옷가지는 천연적인 세균번식배양기가 되는데 옷의 틈새에 있던 세균들이 적합한 습도, 온도 아래 대량으로 번식하여 프로피온산 같은 산성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옷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늘에서 말린 옷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을가?

한효락은 "만약 옷을 급히 입어야 한다면 봉지에 넣어 드라이기로 15 분간 찬바람을 쏘여 냄새를 없앨 수 있다. 또한 옷을 수증기가 충분한, 갓 목욕을 마친 욕실에 두면 수증기가 빠르게 옷 안쪽으로 침투되여 옷의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말했다.

이외 만약 옷의 냄새가 비교적 완고하면 다시 세탁하여 해빛에 말릴 수 있다. 옷에 곰팡이가 있으면 쌀뜨물에 옷을 담그거나 알콜용액, 뜨거운 비누물 등을 리용한 부동한 세탁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최신판 표준지도 발표

8 월 28 일, 2023 년판 표준지도가 측회법 선전일 및 국가판도의식선전주 주요활동에서 발표되였다. 국가판도는 한 국가가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강역으로서 국가 주권과 령토완정의 상징이다. 지도는 국가판도의 가장 주요한 표현형식으로서 국가의 주권범위를 반영하는바 엄숙한 정치성, 엄밀한 과학성과 엄격한 법정성이 있다.

2023 년판 표준지도서비스에는 계렬 비례척도 표준지도 380 폭이 포함되는데 중국지도, 세계지도와 특정지도를 망라하고 있다. 참고지도가 총 1661 폭인데 지도내용의 계통성, 실용성, 현세성(现势性) 등 특점에 근거하여 지방 자연자원 주관부문이 제공해 표준지도서비스계통에 포함시켰다.



표준지도는 중국과 세계 각국의 국경선 화법표준에 따라 작성되였으며 신문선전용 지도, 서적 및 신문 삽화, 광고전시 배경도, 공예품디자인 밑그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개판 지도 제작을 위한 참고 밑그림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회 대중들은 무료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표준지도를 직접 사용할 때 심사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총 6 개 판본의 표준지도를 발표했다. 전국 31 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퇀에서 모두 온라인 발표경로와 표준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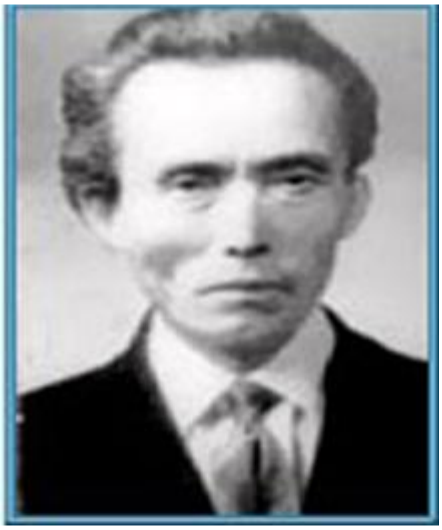
가요 《그리운 강남》과 작곡가 안기영(1)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그리운 강남》, 《반달》과 같은 동요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세상을 그리는 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통하여 해방의 날을 학수고대하는 인민들의 심정을 정서깊이 노래하고있다고, 그렇기때문에 이 노래들은 어린이들뿐아니라 어른들속에서도 많이 불리운다고 교시하시였다.

가요가 창작된지 80 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 민족 누구나 즐겨부르는 노래 《그리운 강남》!

그러면 이 노래를 지은 음악가 안기영은 어떤 인생행로를 걸어온 사람인가.

1900년 1월 충청남도 정산군(당시)의 가난한 집안에서 출생한 안기영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재능이 뛰여났지만 돈이 없었던탓으로 하여 음악공부를 제대로 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나 꿈을 실현해보려고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들을 떠돌아다니며 갖은 고생을 다하였다. 그 나날 그는 3. 1인민봉기에 참가했다는 죄아닌 죄로 감옥생활도 하였고 독립군경력을 가졌다는것으로 하여 일제놈들의 모진 박해도 받아야 하였다.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면서 안기영은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함께 조선사람들이 왜놈이 없는 세상에서 화목하게 잘 살수 있는 곳은 과연 어데일가 하는 동경심을 품게되였다.

이런 사상정신상태는 그의 창작활동에 그대로 반영되였다.

안기영은 1928년에 가요 《그리운 강남》을 처녀작으로 내놓은데 이어 《조선의 꽃》(1928년), 《작별》(1933년)을 창작하였으며 이것은 오늘까지도 그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이 더욱 강화하였으나 그는 뜻이 있는 음악가들, 시인, 연극인들과 함께 경가극창작을 시작하여 경가극 《콩쥐팥쥐》(1941년), 《견우직녀》(1942년), 《은하수》(1943년) 등을 창작공연하였다.

일제는《불온사상》이 담겨져있다고 하면서 그가 작곡한 수십편의 노래들에 금곡령을 들씌우고 지어는《그리운 강남》이 취입되여있는 레코드들에 판매금지처분까지 내리였다.

그러나 안기영은 일제의 악착스러운 탄압과 교활한 회유기만술책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음악가의 량심과 민족적지조를 지켜 싸웠다.

8. 15해방후 안기영은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이미 미국에서 고학하는 기간에 온갖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은바있는 그였기에 미국의 침략적이며 위선적인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수 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려운형이 이끄는 《조선인민당》에 들어가 음악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국놈들과 그에 추종하는 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섰다.

1950년 6월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되자 안기영은 당시 서울에서 활동하던 권위있는 공화국예술단체에 가입하여 작곡가로 활동하게 되였다.

그리고 몇달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였을 때에는 단호하게 북행길에 오를것을 결심하고 사선의 고비들을 넘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를 찾아갔다.

그때 안기영의 나이는 50살이였다. 사실 이런 나이에 이른 사람이 사랑하는 처자들을 남조선에 두고 단신으로 북행길에 오른다는것은 누구나 선뜻 결심할 문제가 아니였다.

안기영은 전쟁의 어려운 시기였지만 어버이주석님의 품에 안겨 지나온 인생길에 받아보지 못한 행복과 기쁨, 영광을 너무도 많이 받아안게 되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도 그의 가족들이 서울에 남아있다는것을 아시고 그들을 모두 데려오도록 은정어린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1950년 10월 강계에서 안기영은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였다.

또한 안기영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자기가 지은 노래를 친히 부르시였다는 소식을 무한한 감격속에서 접하게 되였다.

주체40(1951)년 4월 어느날 강원도 법동군 룡포리에서 인민군장병들과 휴식의 한때를 보내시던 위대한 주석님께서 전사들의 한결같은 소청을 받으시고 직접 부르신 노래가 바로 《그리운 강남》이였던것이다.

안기영은 저주로운 남조선에서 구박과 천대만을 받아오던 자기에게 천금같은 사랑과 믿음, 재생의 희열을 안겨주신 위대한 주석님의 하늘같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1951년부터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에서 교편을 잡은 그는 수많은 성악가수들을 키워냈으며 이 기간 수십편의 가요, 동요, 기악곡도 창작하였다. 또한 《발성기본련습곡집》, 《성악창법련습곡집》, 《시창훈련곡집》을 만들어 교육사업에 도입하였고 《성악에서의 변성에 대하여》를 비롯한 많은 음악론문들을 집필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음악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 및 상무위원, 아동음악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다년간 활약하였으며 많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백두산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 안겨 음악가 안기영이 보낸 30여년의 인생후반생은 참으로 보람있고 행복한 날들의 련속이였다.

가요 《그리운 강남》과 작곡가 안기영(2)

우리는 앞에서 가요 《그리운 강남》을 작곡한 음악가 안기영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는가를 보았다.

그러면 안기영을 따라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의 자녀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였는지.

우리는 오늘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안기영에게는 6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음악에 대한 열망이 그처럼 절절했으나 돈이 없었던탓에 뼈에 사무치는 설음을 겪지않으면 안되였던 안기영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자식들을 공부시켜 떳떳이 내세우는것이였다.

하지만 사람 못살 남조선에서 그것은 한갖 꿈에 불과하였다.

그는 맏딸을 음악가로 키워보려고 피아노공부를 시켰지만 7~8년동안에 선생을 네번이나 바꾸지 않으면 안되였다. 돈이 없었던탓이였다.

그러나 고마운 조국의 품에 안기여 안기영은 그처럼 바라던 소원을 한껏 성취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맏아들과 둘째아들, 셋째딸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과학

연구기관의 권위있는 연구사들로 자라났으며 맏딸을 비롯한 딸 3명은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을 졸업하고 재능있는 예술인들로 성장하였다.

그중에서도 맏딸 안남식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직접 무어주신 만수대예술단 녀성기악중주단 피아노연주가로 활동하는 최상최대의 영광을 받아안았다.

주체58(1969)년 11월 어느날 녀성기악중주단 연주가들이 무대에 올린 녀성기악중주 《문경고개》와 《눈이 내린다》를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피아노연주가는 연주를 마음에 들게 잘한다고, 이제는 피아노연주가로서 완전히 자리가 잡힌것 같다고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만수대예술단이 곧 외국방문공연의 길에 오르게 되였다는 기쁜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안남식은 입원치료를 받고있었다.

뜻깊은 외국방문공연에 참가할수없게 된 안남식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섭섭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예술단의 책임일군이 치료중에 있는 그를 찾아와 다음과 같은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해주었다.

만수대예술단의 외국방문공연과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가자명단에 왜 안남식의 이름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는것이였다. 일군들이 현재 그가 병치료중이기때문에 제외시켰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무슨 병인가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친히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꼭 보내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다는것이였다.

예술단의 책임일군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병때문에 집단과 떨어져 외롭게 지낼 한 전사의 마음속고충까지 다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이렇듯 다심하고 뜨거운 **김정일**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안남식은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영예도 지니게 되였고 공훈배우칭호도 받아안게 되였으며 작곡가인 그의 남편 윤승진도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김일성**상계관인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안기영이 섰고 그의 자녀들이 섰던 혁명의 초소들에 오늘은 끌끌하게 자란 그의 손자, 손녀들이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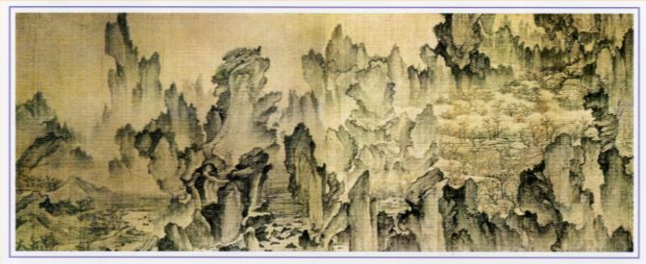
고마운 어머니당의 사랑속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원균명칭음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을 졸업한 안기영선생의 손자, 손녀들은 지금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여러 초소들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이 세상 꽃들이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이 있어야 만발하듯이 재능의 싹도 귀중히 여겨주고 키워주는 위인의 품이 있어야 꽃피고 열매를 맺을수 있다.

이것은 불모의 땅에 떨어진 씨앗마냥 남조선땅에서 움도 틔우지 못하였던 안기영과 그의 자녀들이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재능도 꿈도 다같이 꽃피워온 나날에 심장으로 터득한 철리이다. 김권식







꿈에 본 동산







어부

15세기후반기에 와서 우리 나라 화가들중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사람은 리상좌라고 보았을뿐만아니라 그 내용에서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화가였다.

안견은 당시 문인화의 화풍에 빠져 사군자(매화, 국화, 란초,참대)와 같은 그림만을 숭배하던 봉건통치배들의 도식적이고 고루한 미학관을 배척하고 현실에서 직접 볼수있는 대상들을 자기의 화폭들에 많이 구현하였다.

안견의 화폭에서 우수한 점은 조형적형상에서 필치가 힘있고 아름다운것이다.

특징은 색채가 연하면서도 선명하고 부드러운맛이 나게 표현되고있는것이다.

한마디로 안견의 그림은 깊은 사색을 하게 하며 회화적인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안견의 이러한 개성적이며 독자적인 화풍은 15세기는 물론 그 이후화가들이였던 신사임당, 리정 등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안경은 도특한 필치로 조선화화법의 기초를 쌓는데 전념함으로써 우리 나라 중세기미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도화서
리조시기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주로 왕실에서 요구되는 그림을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센터

沈阳市牡丹文化艺术培训中心





艺术的摇篮 배움의 요람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센터는 예술의 요람입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센터는 조선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조선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예술에 종사한 조선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있습니다.
모란문화예술양성센터에서 배운 많은 학생들이 전국예술콩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本中心与朝鲜文化艺术部门进行长期交流。聘请了毕业于朝鲜平壤音乐大学，从事多年艺术工作的优秀教师。在朝鲜教师的 精心指导下， 本中心很多学员在全国各种文艺比赛中获得了优异成绩。

地址：沈阳市皇姑区三江街
3-2
电话：024-86426512
13516032172

